M 2014 Vol. 27 계간 더 마이스 THE MIICE KOREA MICE ASSOCIATION

계간 더 마이스

The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27
2014 Vol

PROLOGUE
네트워크를 위한 최적의 공간 | 윤유식 연구편집위원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 제7대 ㈔한국MICE협회 김응수 회장

SPECIAL
참여할수록 혜택이 많아지는, 한국MICE협회 2014년도 주요사업
성황리에 개최된 MICE산업의 대표 컨벤션 | 한국MICE연례회의
강원, 국제회의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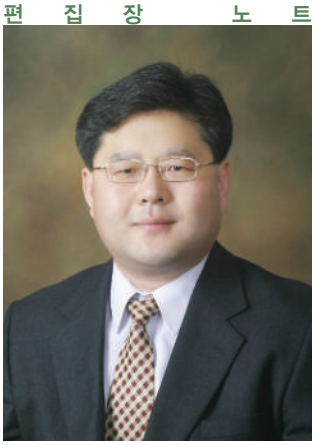
FOCUS
수도서울 매력 발산할 유니크 베뉴·활성화 전략
국제행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 지역별 뷰로 서포터즈
그린컨벤션 체험기 '진정한 친환경 회의란?'

MICE
Event
Meeting
Convention
Seminar
tourism
Exhibition
incentive travel
Forum

Korea MICE Association
한국MICE협회
www.micekorea.or.kr

네트워크를 위한 최적의 공간

편 집 장 노 트



연구편집위원장 **윤 유 식**
(경희대 교수)

MICE산업은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하며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 MICE산업은 직접적으로는 개최관련기관 및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MICE를 개최하는 지역 업계 및 지역산업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는 개최기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해당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2차적 혹은 최종적으로는 개최지역 서비스 제공업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또한 관광진흥법을 통해 MICE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MICE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산업 특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MICE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MICE산업 종사자 및 학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MICE협회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간『The MICE』는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편집위원 12명을 새롭게 구성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새로운『The MICE』는 개최된 MICE 행사의 특징과 특성을 소개하고, 협회의 회원사 탐방을 통하여 다양한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국내 MICE산업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적인 MICE트렌드를 소개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MICE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The MICE』가 우리나라 MICE산업의 업계,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정보 교류 및 공유의 장으로서 MICE산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곳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MICE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MICE는 세상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세계인이 만나는 드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간 더 마이스 통권 제27호 **발행** ㈔한국MICE협회 **발행일** 2014년 5월20일 **발행인** 김응수 **편집위원장** 윤유식 **편집위원** 강다은, 권명희, 김대환, 김민혜, 김영석, 양천도, 오세훈, 임형순, 정정숙, 조진훈, 홍재선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0층 ㈔한국MICE협회 **TEL** 02-3476-8325 **FAX** 02-3476-8449 **편집 및 디자인** ㈜오버리지(02-6000-6713)

SPECIAL

15 **특집 Ⅰ** 한국MICE협회 2014 주요사업

22 **특집 Ⅱ** 2014 MICE연례총회

27 **특집 Ⅲ** 2014 KME 프리뷰

28 **정책** 강원도 MICE정책

30 **기고** MICE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은 움직임

32 **세미나** 한국컨벤션학회 춘계 학술대회

Prologue

01 **편집장노트**

04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News briefing

10 MICE Day MICE Calendar

People

34 **회원사탐방 1** 대구컨벤션관광뷰로

36 **회원사탐방 2** 제니컴

38 **회원사탐방 3** 곤지암리조트

40 **회원사탐방 4** 서울컨벤션

42 **유니크 베뉴** 서울시 유니크 베뉴 선정기준

지역별 유니크 베뉴

Focus

46 **줌인** 새만금컨벤션센터 개관

48 MICE PEOPLE 지역 뷰로 서포터즈(광주, 대구, 경남)

51 **인사이드 1** 광주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52 **인사이드 2** 대구 국제회의로 풍성한 2015년

53 **인사이드 3** 인천 MICE잡페어/제주 MICE Alliance

54 **인사이드 4** 부산 아트버스 운행

55 **인사이드 5**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56 **인사이드 6** 한국MICE협회 복지관광 연계투어

57 **인사이드 7** 문광부, 관광고 지원 추진

58 **인사이드 8** 서울 관광명소 운영

62 **글로벌** UNWTO 'Global Report on the Meetings Industry'

그린컨벤션 체험기 '진정한 친환경 회의란?'

Communication

66 **칭찬릴레이** 하나투어 황지원 팀장

68 **힐링컬처** 지역별 공연모음

72 MICE Lounge 신규회원사

“협회가 강해져야 회원 권익도 향상되죠”

한국MICE협회 김응수 회장

지난 3월 업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김응수 대표가 한국MICE협회 제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MICE산업이 '황금을 낳는 산업'으로 칭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응수 회장. 그는 선임 후 하루에도 서너 건의 회의에 참여하며 어떤 기간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강해져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며 "임기동안 산업과 협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취임 후 한 달 남짓 흘렀다. MICE산업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진 감회가 어떤가.

선거를 준비하며 협회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했다. 투표 후 회장에 당선 됐을 때는 개인적인 영광이었다. 그러나 곧 영광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MICE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고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초심을 버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 회장에 출마했을 때의 의지와 준비하면서의 즐거움, 기대감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협회를 운영해 갈 것이다.

회장으로서 가장 초점을 맞춘 업무라면 무엇인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협회 업무를 파악하고 회원사의 요구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구, 경주, 대전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협회사들을 만나고 협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한 것이 공약 중 가장 큰 사업인 MICE공제회와 MICE연수원 건립이었다. 이것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만나며 공제회와 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다.

MICE산업 내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

MICE산업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건전한 생태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PCO의 지원역할을 강화하면 PCO가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컨벤션뷰로의 무기가 된다. 행사를 유치하는 수가 많아지면 센터는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나라 MICE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MICE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융합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각자가 일을 잘해왔지만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리미엄패스가 의전서비스로 시작해 PCO, 수송, 등록, 관광의 토털서비스를 지향하듯이 MICE산업이 PCO와 서비스업 회사, 센터, 뷰로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업종 간, 지역 간 동반성장을 하고 균형발전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 이를 위해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심층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이야기들을 MICE업계의 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계간 〈The MICE〉를 통해 회원사와 공유할 것이다.

PCO의 수익구조 다변화가 오래전부터 화두인데.

행사 하나만 보고 있으면 행사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PCO 회원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다변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나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다. 처음으로 의전을 산업화하기도 했다. PCO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PCO 수익 다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인재들도 많은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과 컨벤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처음이기 때문에 찾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 관점을 넓게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보인다. PCO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안내센터의 기능을 'MICE비즈니스트레블센터'로 바꿀 수 있다. 단순 안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행사장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MICE산업은 결국 인력이 핵심동력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은.

MICE행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왜 PCO를 쓰고 서비스업체를 쓸까.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MICE연수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연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연수원에 부여하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이 될 수 있다.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다. 협회가 교육 기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따른 교육사업에는 한계가 많다. 또 특정한 사람만 교육을 받게 되고 확대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을 좀 더 다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문화부에서 주는 비용으로 이뤄졌는데 더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산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각화 시켜야 한다. MICE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다. 협회에서 하는 사업을 두세 배로 늘릴 것이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안전대책, 소양교육, 경청연수, 글로벌매너에티켓 등 환대서비스의 기본 핵심에 관한 자격증을 만들었다. 협회는 자격증 인증과 시험을 주관할 수 있도록 생산성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또한 회원사들에게 중요한 교육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MICE공제회를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협회원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듣고 싶다.

큰 공약 중 하나다. 공제회를 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 최소한 10억의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억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안되는 이유만 생각하면 방법이 안 나온다. 방법은 찾을 때 나오는 것이다.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여행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중앙회 회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행공제회가 운영되는 것에 MICE 항목을 신설해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회원사들이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한도가 없어 고민하는 것을 협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금이 쌓이게 되면 별도의 MICE공제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장 비용이 안드는 방법을 생

각해야 한다. 회원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 현재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 각 회원사들이 어떤 보증 유형을 이용하는지 형태와 금액대를 조사하고 있다. 취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제회 추진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다행히 많은 협회원사들이 협조해주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 8월 정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CE산업이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잠재력으로 볼 때도 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현재 MICE산업에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MICE산업이 신성장동력이고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도 앞다투어 MICE팀을 신설한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만 센터나 베뉴 쪽은 약한 상황이다. 코엑스에는 이제 행사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새로운 베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행사 후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MICE를 유치하는 이유는 참가자의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인데 사람들이 돈을 쓸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MICE복합단지가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규제개혁 철폐를 말하는데 MICE산업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산업분류코드에 MICE가 없다. 어떤 산업에나 통계가 중요하다. 통계가 새로운 산업의 방향과 전략이 수립되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통계가 없으니 빅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 MICE산업에는 통계기능이 마비상태다.

표준요율제의 시행도 시급하다. 동반성장이 안되게끔 철두철미한 갑을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MICE산업이다. 언제나 밤새워서 일하고 행사 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시간외 수당은커녕 인건비 보전도 못 받는다. 기획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기획료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을 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표준요율제를 만들어서 정부부터 시행해야 한다. MICE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동반성장도 균형발전도 없다.

앞으로 3년간 협회 운영 방향을 귀띔해 달라.

위원회의를 하는데 9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좋다. 협회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에 응답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찾아가고 움직이는 협회가 될 것이다. 그래야 각 회원사들의 고충,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것이다. 교류하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싶은 협회를 만들겠다고 초기에 약속했다. 열린 협회, 투명한 협회를 운영할 것이다. 그것이 신뢰받는 협회가 되는 길이다. 앞으로 회원사와 협회가 가깝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운영하겠다.

열심히 뛰겠다.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겠다. 회원사들은 저와 협회를 잘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나 대정부 질의 등을 언제든 얘기해 주면 많은 통로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회장을 대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을 추진할 것이다. 그때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주시면 그것을 더 큰 이익으로 회원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글 박지선 사진 박태진

‘2015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유치

대전, 정부간 국제기구 각료급회의 최초 개최

대전광역시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는 최근 ‘2015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 주최 하에 내년 10월 DCC에서 개최될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OECD 34개 회원국 및 20여개 초청국의 장·차관, 국제기구, 과학전문가 대표 등 500명이 모여 과학기술 정책과 공동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권위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각료회의를 대전에서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해부터 대전의 컨벤션 인프라와 참가자 의전, 수송 등 세심한 개최지원 서비스를 강조하고 ‘2009 국제우주대회’ ‘2010 IAEA 핵융합에너지컨퍼런스’ 등 과학관련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을 적극 홍보해 유치에 성공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은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장관회의가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세계적인 과학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벤션 시설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컨벤션디자인硏–서울 마리나

한국컨벤션디자인연구원(이하 ‘코드인’)과 서울 마리나 클럽&요트(이하 ‘서울 마리나’)는 3월 12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 시설의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드인(천재원 원장)과 서울 마리나(이승재 회장)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 마리나 컨벤션 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컨벤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 마리나는 협약에 따라 ▲컨벤션 시설 임대를 위한 세일즈&마케팅 협조체계 구축 ▲컨벤션 행사에 필요한 각종 음식 및 케이터링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컨벤션 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증비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컨벤션디자인연구원은 ‘MICE업계의 맥킨지’라는 모토로 설립된 곳으로 신규 컨벤션 콘텐츠 기획&개발, MICE 교육패키지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컨벤션 시설 운영&세일즈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5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대구 개최 확정…전 세계 전문가 500명 참석

클러스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총회의 대구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월 6일 하버드 대학교의 경쟁력강화연구소의 수석 교수이자 세계경쟁력강화네트워크(TCI Network) 회장인 크리스티앙 케텔스 교수가 대구를 방문해 2015년도 세계클러스터총회의 대구 개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사진과의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2015년도 대구 개최를 승인했다.

TCI(the Competitiveness Institute, 스페인 바르셀로나) Network는 지난 1997년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와 월드 뱅크의 권유로 결성되었으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혹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이다. 그간 미주와 유럽을 주무대로 도시,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연구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클러스터 내의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세계 111개국에 4000여명에 이르는 클러스터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 60여개 클러스터관련 정책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제주, 중국 MICE 시장 공략 '박차'

베트남 하노이서 MICE&관광설명회도

제주컨벤션뷰로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IC&CM China 2014'에 참가해 다국적 MICE 행사를 제주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29개 지역의 1114개 전시업체와 676명의 바이어, 27개 미디어 등 약 3000여명이 참가해 활발한 행사 유치상담을 벌였다.

제주컨벤션뷰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라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등 7개 업체와 함께 제주 단독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MICE 목적지로서의 제주 인프라와 관광자원 등을 홍보해 총 200여건의 예약, 현장 유치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글로벌 기업 인센티브단 유치를 위한 제주 MICE&관광 설명회 및 제주송객 MOU를 체결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이번 행사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규모 포상여행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마이스 캘린더

대구

2014대구뷰티엑스포

2014.5.23~5.25 EXCO
대구광역시 대구뷰티엑스포 사무국
T: 053-601-5352
www.beautyexpo.kr

제5회 대구꽃박람회

2014.6.4~6.8 EXCO
대구광역시 대구꽃박람회사무국
T: 053-601-5064
www.flowerdaegu.kr

제14회 대구국제식품전
(DAFOOD 2014)

2014.6.12~6.15 EXCO
대구광역시 대구국제식품전사무국
T: 053-601-5054
www.dafood.co.kr

아시아 근적외선 심포지엄
(The 4th Asian Near Infrared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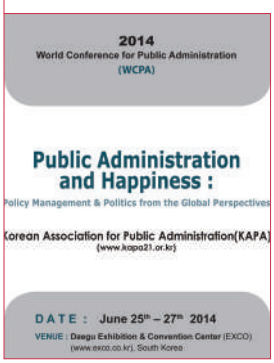
2014.6.17~6.19
호텔인터불고엑스코, 경북대학교
T: 02-2220-0937
www.ans-2014.org

2014 메디엑스포

2014.6.20~6.22 EXCO
대구광역시
T: 053-601-5211
www.mediexpo.co.kr

2014년도 세계행정학술대회
(World Conference Public Administration)

2014.6.25~6.27 EXCO
한국행정학회
T: 02-736-4977
www.kapa21.or.kr/wcpa2014



아태트랜스듀서및마이크로나노기술국제회의(APCOT 2014)

2014.6.29~7.2 EXCO
한국센서학회, 나노시스템학회
T: 053-746-9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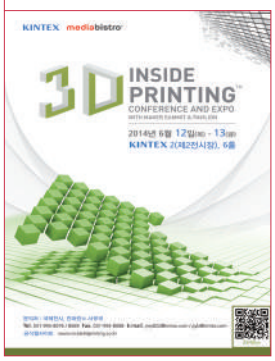
2014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및 학술포럼

2014.7.30~8.5
EXCO, 호텔인터불고
국제대자연사랑실천본부
T: 053-601-5248
youthdance2014.kr

경기

3D inside printing

2014.6.12~6.13 KINTEX
MediaBistro
T: 031-810-8074
www.inside3dprinting.co.kr



2014 경기국제보트쇼

2014.6.12~6.15 KINTEX
해양수산부, 경기도
T: 031-995-8162
www.kibs.com

UN공공행정포럼

2014.6.23~6.26 KINTEX
안전행정부
T: 02-2100-8692
www.unpsforum.go.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학술대회

2014.7.12~7.13 KINTEX
대한치과기공사협회
T: 02-2253-2800
www.icdt.or.kr/Korean/main.asp

대전

제20회 대전충청유아박람회

2014.6.26~6.29
대전무역전시관
㈜대동컴퍼니

2014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

2014.7.9~7.10 DCC Daejeon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대회 & 국제수학경시대회

2014.7.21~7.26 DCC Daejeon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인천

The 12th Korea-Japan Congress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14.5.15~5.17 송도컨벤시아
대한성형외과학회
T: 02-2267-2296

GCF 7차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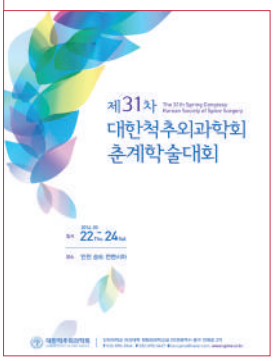
2014.5.19~5.21 송도컨벤시아
GCF(녹색기후기금)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14

2014.5.21~5.22 송도컨벤시아
㈜오릭스코리아

대한척추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2014.5.22~5.24 송도컨벤시아
대한척추외과학회



인천반려동물문화박람회

2014.6.6~6.8 송도컨벤시아
한국펫산업발전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주

제2회 국제 해양장비 박람회

2014.6.11~6.14 송도컨벤시아
해양경찰청

CC3DMR 2014

2014.06.23~06.25
송도컨벤시아
CC3DMR Committes

2014 제8차 세계모발연구회

2014.5.14~5.17
ICC Jeju
대한모발학회
www.hair2014.org

2014 아시아태평양단백질학회 심포지엄

2014.5.17~5.20
ICC Jeju
www.appa2014.or.kr

2014 제28차 BPW 세계대회

2014.5.23~5.27
ICC Jeju
BPW한국연맹

2014 세계토양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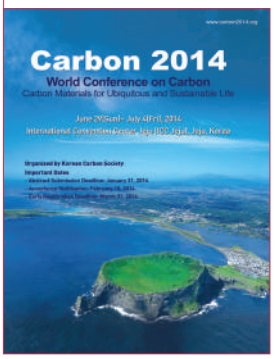
2014.6.8~6.13

2014 제8차 아시아태평양심장 혈관영상의학회

2014.6.12~6.14

2014 세계탄소학회

2014.6.29~7.4



광주

2014 제16회 핸드벨 세계대회

2014.8.5~8.9
ICC Jeju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4.6.15~6.20
김대중컨벤션센터
(재)세계수소에너지학회(IAHE)
T: 062-530-0754

제6회 광주국제금형 기계자동화기기전

2014.6.25~6.28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T: 02-588-2526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2014.6.27~6.29
김대중컨벤션센터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T: 062-236-0080

도약으로 가는 길 모두를 위한 발걸음

특집 Ⅰ 한국MICE협회 2014 주요사업 15
특집 Ⅱ 2014 MICE연례회의 22
특집 Ⅲ 2014 KME 프리뷰 27
정책 강원, 국제회의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 28
기고 MICE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은 움직임 30
세미나 한국컨벤션학회 춘계 학술대회 32

수요자 만족도 높은 교육·소통확대에 중점

한국MICE협회 2014년 주요 사업

올해 한국MICE협회가 진행되는 사업은 크게 교육, 업계내 소통,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2013년에 이어 진행되는 '한국 MICE 아카데미', 'MICE 고급자 아카데미', '특성화고 MICE 인재양성 아카데미', '신입직원 OJT 교육', '지역 얼라이언스별 맞춤형 컨벤션 특화교육' 등의 교육 사업, 'MICE 네트워크샵 개최 및 소그룹 지원', '계간 [The MICE] 등 발간' 등의 업계 내 소통 사업, 해외 진출 및 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컨벤션박람회 업계 공동참가', 'MICE 영프로페셔널 육성 및 해외파견 지원', 'MICE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단체 교류활동' 등이 있으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교육지원',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운영' 등이 있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적극 지원

서비스 성격이 강한 MICE 업계 특성상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우선 **'한국 MICE 아카데미'**는 취업 희망자(대졸 혹은 대졸 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및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소지자, PCO 신규취업자 등 컨벤션 업계의 입문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바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무적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선발 단계부터 양질의 교육생을 확보하여 교육 수료 후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70명을 대상으로 총 140명에 대해 60시간(12일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대상으로는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취업희망자, MICE업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컨벤션 기획사 취득자 등 MICE 신규 입문 대상자 등이며 다문화 가정 및 조기퇴직자등도 검토 대상이다. 버즈 세션, 멘토링 세션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교육생 간, MICE 업계 실무자와 교육생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MICE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지속적인 양질의 인력 공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자 아카데미'는 전문적인 보수교육 자체 실시가 어려운 회원사 및 관련 사업체들의 꾸준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다.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교육실시가 어려워 아쉬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 3년 이상인 업계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MICE 연례회의와 연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MICE 미래 관리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20~21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상반기 MICE 연례회의 기간 중 개최돼 MICE 업계 경력 3년 이상의 실무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성화고 MICE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2013년에 이어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의 관광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MICE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MICE산업 교육 및 직무교육 후 양질의 일자리에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실시결과 자체 MICE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MICE산업교육과 직무 안내교육을 진행, 호평을 받았던 사업으로 올해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4박 5일에 걸쳐 3학년 재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MICE산업의 특성상 인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대부분을 구성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인력 관리·교육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예외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직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새롭게 다져나가는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MICE업체들은 예산과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신입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신입사원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은 이에 협회가 실시하는 업계 인력양성 사업의 경력 단계별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첫 번째 단계로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직원 통합 교육을 실하는 것이다.

작년 대비 예산도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7월, 11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년차 미만 신입사원 각 50명씩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기획의 핵심 분야별 이론교육 및 실습, 현장실습 및 비즈니스 매너와 기획서 작성법 등의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얼라이언스별 맞춤형 컨벤션 특화교육'은 지역별 NEEDS에 맞는 컨벤션 특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다소 소외되었던 지역 MICE인재 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의 MICE 종사자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얼라이언스, 관광공사, 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지역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 수료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업계 내 소통 활성화에 힘 보탠다

'MICE 네트워크샵 개최 및 소그룹 지원'은 MICE 업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MICE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 개최와 업계 내 소그룹 모임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MICE 네트워크샵'(12월)을 개최하고 CMP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스터디그룹 구성 및 관련 종사자모임(Young MICE Community) 및 동아리(전국 대학생 컨벤션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쟁력 제고 및 동기부여를 꾀하고 있다.

'계간 [The MICE]등 발간 사업'은 계간 'The MICE' 매거진, Webzine 및 e-Newsletter 등의 정기 발행으로 MICE협회의 업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한국 MICE협회의 소개자료, 각종 사업 홍보자료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The MICE'웹진과 연계해 업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업계의 각 분야 성공사례, 선진 노하우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MICE 행사개최소식, 우수업체 탐방기사 등 전 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내실있는 MICE업계의 소식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MICE산업의 소통 활성화는 물론 향후 MICE산업의 전문 매체로서의 위상을 정리하는 한편, 주요 컨벤션 주최자들에게 발송하여 MICE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하려 한다.

글로벌 경쟁력 배양위한 해외 사업 실시

'선진 컨벤션/박람회 업계 공동참가 사업'은 회원사들에게 해외 박람회와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행사 유치 상담, 한국 홍보 등의 활동과 선진 컨벤션 마케팅 노하우 습득,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2013년도에 실시된 사업 중 회원사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DMAI, MPI WEC 교육 콩그레스, ASAE 연례총회, SITE, PCMA 교육 등에 회원사 임직원 30여명을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안내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해외 컨벤션 박람회 참여에 대한 역할 및 중요성을 인지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2013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MICE 영프로페셔널 육성 및 해외파견 지원사업'**은 올해 사전 홍보를 강화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는 등 목적성을 명확히 부여, 해외 파견자는 물론 국가적 컨벤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DB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총 5명의 대상자를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MICE 선진국 기관에 파견, 중장기적 으로 국가 컨벤션 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에게는 국제적 네트워크 제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같이 제공하려 한다.

'MICE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단체 교류활동'은 유관 국제기구 가입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컨벤션업계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이다. MICE 관련 국제기구인 MPI(Meet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ASAE(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 PCMA(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 (이상 미국), SACEOS(Singapore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싱가포르), JAPCO(Jap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s)(일본)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Congress 참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편성사업도 관심

2014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 중 **'맞춤형 기업 교육 지원사업'**은 국내 MICE 관련 기관·업체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업무 일정과 협회 교육 일정의 차이로 실제적 교육 기회를 수혜받지 못하는 실무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몇몇 업체에서는 업체별로 필요한 세부 교육을 사내 교육을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강사 섭외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관·업체가 원하는 교육 기간에 MICE산업 기반 지식 교육 및 업무수행 능력에 도움을 주는 실무 교육을 지원, 기업의 만족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기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협회 주도의 교육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일정 및 커리큘럼의 맞춤형 교육 시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강사비·회의장 임대비 등을 업체당 연 1회, 총액 150만원 지원 한도로 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운영사업'은 연간 수십건의 국제회의에서 매번 필요한 공항 안내 데스크의 수량이 부족하고 소규모 행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MICE협회 차원에서 연간 부스를 운영, 업계의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행사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공항 내에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내·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으며 특정 행사가 아닌 한국 MICE산업 전반에 대한 안내 시스템 및 숙박·교통·비즈니스 안내·투어 등을 지원해 MICE산업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사회 및 조직 구성

2014년도 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4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협회 사업계획 보고와 제 7대 협회 이사회 및 조직구성안 보고, 2013년도 협회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다.

제7대 이사회는 회장 1명, 감사 2명, 부회장 7명, 이사 20명으로 직능별 전문화 및 차별화를 위해 센터 및 뷰로, PCO 및 기획사, MICE 서비스, 연구 및 교육기관 등에서 고르게 구성됐다. 신임 회장인 김응수 ㈜프리미엄패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정광훈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장태순 부산관광공사 본부장이 감사를 맡았으며 이승렬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 김용현 대전마케팅공사 본부장, 박종만 엑스코 대표이사, 주석영 ㈜비엠디 대표이사, 석재민 ㈜인터컴 부사장, 서원준 ㈜티에스엠 대표이사, 이창현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사는 한국관광공사 민민홍 실장,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백창곤 대표이사, 인천도시공사 민경석 본부장, ㈜인세션 김승미 대표이사, ㈜피플엑스 이화정 대표이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이재도 사장, ㈜이즈피엠피 한신자 대표이사, ㈜제니컴 김복경 대표이사, ㈜덱스코 한상돌 대표이사, ㈜리컨벤션 이봉순 대표이사, ㈜레드캡투어 표영수 대표이사, ㈜엠아이에스 장한상 대표이사, 골든벨물산 조승종 대표이사, ㈜이렌컴 임준규 대표이사, 벡스코 오성근 대표이사, 코엑스 변보경 대표이사, 킨텍스 이한철 대표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강기권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컨벤션전시정책연구소 윤유식 소장, 호서대학교 창조융합산업연구소 전인오 소장 등이 맡게됐다. 분과별 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교육개발위원회, 연구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협회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다.

다양한 이벤트, 신선한 시도로 호평

국내 최대 MICE행사…
한국MICE연례회의 · 마켓플레이스

한국MICE협회가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한국MICE연례회의 및 마켓플레이스가 지난 2월 20~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 임직원, 협회·학회·기관 등 국제회의 주최사, 지자체, MICE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관계자, 관광·MICE관련 대학교수 및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국내 최대 MICE행사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대학생 100명과 고등학생 200명을 포함한 900여명의 업계관계자들이 이 자리를 통해 활발한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었다.

'MICE한류, 대한민국을 살리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마켓플레이스, MICE-의료관광 융·복합포럼, Great Idea Auction 등의 이벤트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마켓플레이스는 올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국제회의 주최자인 바이어와 MICE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마켓플레이스에는 사전등록을 통해 셀러 40개 기업, 바이어32개 기업이 상담신청을 해왔으며 현장에서도 상담신청이 이어지며 성황을 이뤘다.

MICE협회 관계자는 "처음 시도된 행사라 업체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면도 있었지만 참가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음 행사에서는 더욱 발전된 형식으로 효율적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행사 등록부터 스케줄 공개와 참가자간 네트워킹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된 것도 처음 시도된 부분이었다. 이번 연례회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 이노윙 관계자는 "참가자간 네트워킹과 연사에게 질문하기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컨벤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MICE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강의들도 다양하게 준비돼 참가자들이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손정미 한국관광대 교수는 취업과 구인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정미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는 회의, 이벤트 전시의 3가지 영역을 구분해 정리했지만 향후 통합적인 인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3가지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격증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슐리 정 아이데틱 마케팅 대표는 MICE산업의 해외브랜딩 전략에 대해 전했다. 그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때나 홍보를 할 때 심플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MICE협회와 한국의료관광협회가 공동주최한 'MICE-의료관광 융·복합포럼'에서는 미래 성장엔진으로 주목되는 MICE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의 공동 성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김혜영 한국의료관광협회 이사는 "MICE산업과 의료관광시장이 정부의 지원 및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융·복합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MICE관광객의 참가목적 외 체류일에 의료관광상품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의료관광을 통해 체류일을 연장하도록 하는 상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 홍보마케팅 ▲MICE-의료관광 표준상품 개발 ▲MICE-의료관광 콤플렉스 개발 ▲사후관리 활성화를 통한 재방문 유도 등 크게 4가지 부분에서 MICE산업과 의료관광의 융·복합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이 두 가지 상품을 함께 소비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 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MICE연례회의에는 MICE펍파티, 수묵 대북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더해져 행사에 흥을 더했다.

MICE업계의 미래를 만난 시간

팀장들의 실무토크 콘서트

MICE업계 진출을 꿈꾸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건 다름아닌 현직 PCO팀장들의 실무토크콘서트. 청중의 대부분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던 만큼 이날의 주제는 업계 취업이었고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세 명의 팀장들은 쉴새없이 쏟아지는 질문세례를 받아야 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즉석에서 팀장들이 학생에게 인턴직을 제안할 정도였다. 콘서트에는 여선민 부산 이오컨벡스 팀장, 황금찬 써플에이코리아 팀장, 김은영 이오컨벡스 팀장이 참여했다.

근무처우가 많이 열악한가요.

여 동시통역사들에게 일한 시간 기준 대비 인건비 규정이 있듯이 우리 PCO들도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우가 그리 좋지 않은 건 역사가 짧은 탓도 있을 것이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래야 인력들이 영입될 수 있지 않겠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예전보다 분명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이 중소기업이고 다들 힘들게 직장생활을 한다. 갑자기 중소기업의 환경을 바꿀 순 없지 않나. 우리 집 앞에 미용실이 하나 있다. 아주머니 혼자서 미용실을 하는데 주말에도 연다. 적어도 그 분보다는 많이 쉰다.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먹고 살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라.

MICE업계 진출을 후회한 적 없나요.

여 밤늦게까지 일할 때마다 늘 후회한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만둬야지란 생각을 매번 한다.(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성취감이라 설명하는데 사실 성취감은 한 프로젝트 끝냈다고 오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장한 것이 보이더라.

황 우리 일은 대부분 주최기관이 있고 대행을 해주는 역할이다.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 중 을의 입장인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럴 땐 솔직히 후회된다. 갑의 위치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곤 한다.(웃음)

김 전문직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근무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만약 높은 연봉을 받는 게 목표라면 이쪽 진입을 후회할 것이라 본다. '내 스펙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나'할 것 같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채용시 우선적으로 보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김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타 전공은 큰 이점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행사가 많은데 오히려 자신의 전공분야 행사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 컨벤션 관련 경험만 쌓으면 된다. 꼬치꼬치 캐물으면 대부분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행사의 서포터즈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생각을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다.

여 각자의 전공에 따라 자신의 강점이 있더라. 관건은 얼마나 이 일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가다.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여러 분야에서 얻은 지식들이 다 도움이 되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톡톡’ 튀는 생각을 삽니다!

‘Great Idea Auction’은 올해 MICE연례회의에서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신규 MICE 콘텐츠의 사업화를 꾀함으로써 지역경제와 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날은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5개팀이 참여했다.

김비태 경주컨벤션뷰로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각 팀이 자신들의 기획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Make 1팀은 ‘2014 자동차 튜닝산업 컨퍼런스’를 발표했다. Make 1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튜닝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에 착안해 기획했으며 영암 F1경기장의 활용도 제고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소를 전시장인 아닌 영암 F1경기장으로 택한 점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시와 이벤트, 패널세션&토론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튜닝산업 컨퍼런스는 수십개 세션의 토론 주제와 구체적인 명단까지 제시하고 개회식 이벤트로 튜닝카 퍼레이드를 언급하는 등 창의성과 구체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번째 발표작은 상상흥신소팀의 ‘다놀자FESTA’. 상상흥신소팀은 우리나라에 명절과 민속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서구문화인 할로윈데이에 열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축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놀자FESTA는 단오 직전 주말 홍대 일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그랜드 아트페어, 홍대클럽과 연계된 파티, 홍대상권과 연계된 보물찾기 등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제시됐다. 심사위원들은 창의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단오와 관련한 지역축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호평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오컨벡스의 윤정우씨가 ‘2014 장례문화박람회’를 발표했다. 윤씨는 해외에서 열리고 있는 기존의 장례박람회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 사례를 언급했다. 윤씨는 “2009년과 2012년 킨텍스와 코엑스에서 각각 장례산업을 전문으로 다룬 전시회가 1건씩 열렸지만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례문화박람회는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참관자의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도록 장례박람회의 이름을 관련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표작은 식스센스팀의 경주 세계장애인 관광복지대회. 식스센스팀은 국내 장애인 250만 명 중 1%만이 여행을 목적으로 외출한다는 통계에서 착안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장소로 경주를 택한 이유는 관광특구 도시인데다 장애인관광도우미 센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주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육성방안,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공식 수화명칭 제정, 장애인 관련 인프라 해외우수사례분석 등 다양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기획안에 대해 현실성이 높지만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마지막 순서였던 STCS팀의 ‘스마트 투어리즘 컨퍼런스 & Exhibition’는 스마트 투어리즘을 주제로 논의하는 컨퍼런스, 전시회,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표회 등으로 구성된 행사였으나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Great IDEA Auction

www.koreamice.kr

KME2014
KOREA MICE EXPO 2014

한국의 대표 MICE 축제
KOREA MICE EXPO 2014가
오는 6월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개최하는 KOREA MICE EXPO 2014는
한국의 대표적 MICE 전시 박람회로서
국내외 200여개의 Seller 와 350명
이상의 Buyer 등이 참석해 MICE 업계의
B2B 비지니스를 활성화 하는
대표적인 MICE 행사가 될 것입니다.

기 간 : 2014년 6월 19일(목) ~ 20일(금)
장 소 : KINTEX 제 1전시장 4홀(10,773㎡)
규 모 : 참가업체 200여개,
초청 바이어 350여명
시 간 : 6월 19일(목) 10:00~18:00
6월 20일(금) 10:00~17:00

KOREA MICE EXPO 2014

주최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경기관광공사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Goyang City 고양시

KINTEX

전시 참가 및 행사 관련 문의

KOREA MICE EXPO 2014 사무국
담당자: 이윤석 과장
Tel. 02-550-2590/2524 | Fax. 02-550-2560 | E-mail. 2014kme@unione.co.kr

한국의 매력을 판매합니다

Korea MICE EXPO 2014… 6월 19~20일 KINTEX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MICE 전문 전시박람회 'KOREA MICE EXPO'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KOREA MICE EXPO'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한국 대표 MICE산업박람회로 지난 2000년 처음 개최됐으며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에서 행사를 가졌으나 지방 MICE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경기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MICE 관련 200여개 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350여 명을 초청해 MICE 전시회 및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바이어 대상 유치설명회, 국제컨벤션협회 데이터 워크숍(ICCA Data Workshop), 코리아 MICE 연맹 워크숍(Korea Mice Alliance Workshop), 국제 MICE 유치 콘테스트, 해외 MICE 유력인사 팸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5년 간 해외바이어 및 MICE 전시회 해외 업체 참가 확대를 통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유럽의 EIBTM과 같은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의료, 한류 및 IT 등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를 통해 MICE산업이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국내 최고의 시설을 겸비한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MICE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류와 MICE의 융복합화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이 담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개최해 이번 박람회를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사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311명이 행사장을 찾아고 4159건의 비즈니스 상담실적을 거둔바 있다.

강원, 국제회의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개소…굵직한 국제행사 예정

강원도가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올해 국제회의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2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역 국제회의산업 관련 활동을 전담할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제회의 유치업무에 들어갔다. 지원센터는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회 및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 개최시 각종 편의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비영리기구다. 컨벤션뷰로의 기능을 담당할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됐다. 센터는 주로 국제회의 및 관광객 유치와 컨벤션 관련 민간지원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국내·외 전담조직(뷰로)과의 업무교류와 ICCA 등 국제회의기구에도 가입해 도의 국제회의산업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최수영 이사장(한림대 부총장)을 비롯한 창립회원들과 한국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등 관광산업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도내 컨벤션산업 육성과 국제회의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컨벤션뷰로'의 기능을 담당할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관광 등을 장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통합 마케팅으로 관련 업계·기관·단체들과 협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담조직(뷰로)과의 업무교류와 ICCA 등 국제회의기구에 가입해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로 동계올림픽개최를 기반으로 구축한 강원도 컨벤션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강원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심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내년초 알펜시아, 용평지구 일대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올해 말 강원도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면서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업무환경에 기본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제회의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인 '강원도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평창군의 국제회의도시 지정,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연계 테마형 상품을 개발, MICE 특화 마케팅·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국제회의산업(MICE산업)의 강원도 정착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경기대 산학협력단과 국제회의산업 전문가들이 참여, 5개월 간 연구 끝에 완성됐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사업에 투자될 총괄 사업비는 총 122억 원으로 예측됐다.(국제회의산업 기반조성 23억 원, 국제회의 전문인력양성 50억 원, 국제회의 상품개발 24억 원, 국제회의 마케팅홍보 23억 원) 도는 이미 컨벤션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 이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도 전역을 국제회의 특화도시로 정비하고 MICE산업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접근성이 좋은 타 지역에 이미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각종 인프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이 가진 특화자원을 살린 콘텐츠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구결과의 핵심전략인 '국제회의도시 기반조성 계획'은 평창군의 국제회의도시화와 국제회의유치 및 개최지원 제도정비, 국제회의 연관시설 확충, 유니크 베뉴 발굴 및 지원, 지속 성장동력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유치지원 제도 개선안'은 현재 유치단 최대 3인의 항공과 숙박, 등록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인원 증대 또는 인원제한 없이 지원한도 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상을 국제기구 및 인센티브투어와 기업회의 유치 관계자, 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유치 간부회의 대상자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컨벤션 인프라 정비 사업'은 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종합특구 계획안과 연계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종합특구계획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특급호텔,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국제회의 연관시설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동계올림픽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9.29~10.17)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193개 회원국,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의 약 2만 명이 참가해 개최되는 환경 분야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국제회의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2018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회의다.

2014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올해 2회째 개최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박람회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강릉실내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 · 중국 · 일본 중소기업 간 경제무역 · 투자촉진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 · 일 · 한 중소기업촉진회, 중국 지린성 · 네이멍구 · 헤이룽장성 · 후난성, 러시아 연해주 · 사하공화국, 일본 돗토리현 등 교류지역과 옛 소련권 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MICE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은 발걸음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현장에서 MICE산업을 지도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한다. 국내 MICE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정말 괄목할 만하다. 한때 MICE라는 단어의 어감이 이상하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곧 사라질 단어라는 얘기들을 하곤 했는데 요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전문지를 보면 MICE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9~10일 International Convention & Expo Summit(ICES) 2014 행사를 춘천과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UNLV에서 컨벤션학과를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컨벤션과 전시분야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오다가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HKPU) 호텔관광학부 Kaye Chon(전계성) 학장이 공동개최를 제안하면서 HKPU와 UNLV 싱가폴 캠퍼스에서 순회하며 개최해왔고 2011년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공동주최로 초청된 이후 홍콩–한국–태국 등을 순회하면서 매회 개최되고 있다. 행사 개최의 목적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컨벤션, 전시 분야 교수, 학생,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학술 세미나 개최이다.

학술교류 목적 ICES 개최

다만 올해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컨벤션 행사의 개최 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참가자 수 증가와 만족도 증가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참가자 수 증대를 위해서는 등록비 카테고리의 다양화 및 등록 패키지 구성의 다양화 전략도 있고 개최지 선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참가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내 개최 이후 홍콩과 태국에서 동일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참가해보니 개최장소와 다양한 이벤트 연출을 통하여 참가자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국내에서 열린 2011년도 행사는 한국에서 최초라는 프리미엄이 있었고, 한류가 워낙 붐이었기에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의 학생 참여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한국에서 두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참가자 유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공모전을 실행하였다. 공모전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킹 모델 제안으로 모델의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태국과 국내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팀 구성을 하여 출전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외국학생들의 공모전 아이디어를 받아보면서 미래의 MICE산업은 아시아 젊은이들이 선도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산업의 미래를 보는 방향성이 정확했고 성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도 튀어나왔다.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내 감이 이제는 많이 떨어졌구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이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이들은 행사 운영의 세부적인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여란 재무적인 내용인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재능기부일 수도 있고, 기획업무를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것이 현실화된다면 곧 우리 업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리더국가는 인재양성부터

가령 한 친구는 희망의 셔틀버스라는 형식으로 아직 MICE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자원봉사요원들이 스케쥴을 맞춰 행사진행 교육을 시켜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책으로 컨벤션, 전시를 배운 학생들의 경우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생기고, 책으로만 배우면 흥미도 떨어지므로 소셜게임을 이용한 컨벤션, 전시 운영을 제안한 팀도 있었다. 물론 기성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통계센터 구축, 신규행사 제안의 아이디어들도 있었지만 어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부여해주면 좋은 프로젝트가 될 만한 제안들이 꽤 있었다.

대한민국 MICE산업이 향후 아시아, 세계 MICE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국의 MICE 영향력과 네트워킹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융합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단순히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MICE산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인성이 갖추어진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내 MICE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리더들은 그들의 네트워킹을 조금 더 국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CEI 잡지 4월호에 글로벌 협회들이 신흥 경제 부국으로 떠오르는 아시아로 시야를 옮기면서 신규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과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협회 및 학회 임원들은 그들의 양적 확장을 위하여 신규회원 모집이 언제나 일차적 목표인데 기존의 미국과 유럽지역에서의 신규회원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마켓으로 아시아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도 더 많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도 아시아 지역의 회원 발굴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킹 활성화위한 지원

PCO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영어권 국가들의 아시아 시장 확장은 결국 국내 PCO를 로컬 PCO 혹은 DMC로만 활용할 확률을 높일 것이고, 국제회의 유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 혹은 컨벤션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국내 협회 및 학회의 글로벌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발굴 및 강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ICES 행사는 비록 작지만, 전 세계 유일의 컨벤션, 전시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 이러한 행사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학술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MICE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향후 ICES가 어떠한 행사로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모든 것이 협업 대상 산업 경계 뛰어넘자”
IT·전통문화 등 경계 넘나드는 혁신에 공감

2014 한국컨벤션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 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는 2014 한국컨벤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협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16건의 관련 연구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윤세목 한국컨벤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것이 협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국제회의산업역시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고 시스템적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은 “모두들 융복합, 협업을 말하지만 MICE산업은 특히 더 그래야 한다”며 “MICE산업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올해 발표된 제3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서도 각 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3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해 MICE산업이 갖고 있는 과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회의산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문광부, 산업부, 법무부, 통계청 등 수많은 관계부처간 협력부터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지자체간 시·도 국제회의산업 발전협의회 신설, 한국MICE육성협의회 활성화, 산학 등도 주문했다. 국제회의산업 외연확대에 관한 과제로는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국제회의산업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이 제시됐다.

참여주체별 역할과 과제도 짚었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법·제도 개선과 각 부처와의 정책조율협조, MICE관련 통계데이터 효용성 제고, 지역 특성화 MICE상품 개발 등이 그것이다. 민간 산업계와 관련해서는 회의대행업에서 기획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방송과 공연 등 콘텐츠사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혜진 이화여대 교수의 진행 아래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 김채원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실장, 소병택 유스트림코리아 본부장, 이선의 SBS 기획실 부국장, 한신자 이즈피엠피 부사장이 각자의 영역에서 MICE산업의 협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응수 회장은 "다들 협업하자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업계 스스로 협업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부터 먼저 다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채원 연구관은 "우리의 전통음악예술이 MICE산업과 융합해 해외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일본의 가부키, 러시아의 볼쇼이발레를 언급하며 전통공연도 관광상품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묘제례악, 궁중연례악 등 전통예술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전용극장 구축, 해외공연기지 설립 등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민민홍 실장은 관광공사가 시도한 MICE산업과 관련한 여러 융합사업들을 소개한 후 올해는 전시쪽과의 협업을 위한 정부예산까지 확보한 만큼 전시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택 본부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MICE산업의 IT트렌드를 언급했는데 과거에 기업들이 전시회나 컨퍼런스에 단순히 부스를 마련해 참여했다면 이제는 행사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생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본부장은 "단순히 부스를 만들어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MICE산업이 IT기술을 만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의 부국장은 "MICE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 시작한 SBS서울디지털포럼, 드라마어워드 등이 지금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MICE행사가 됐다"며 "MICE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산업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업계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신자 부사장은 협업과 관련해 다양한 주체 간 상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협업시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측 의사결정자들이 MICE산업을 잘 모르더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뒤 "산관학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돼 즉각적인 대응이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업계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글·사진 김효진

도시 이미지 가꾸며 업무영역 확장

“MICE행사 적합지로 다가갈 것”

최근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대구지역 MICE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고자 도전분야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03년 사무국 개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달려온 길을 10여년의 길을 되돌아보며 대구만의 MICE육성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처음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단 세 명의 인력으로 국제회의 유치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MICE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뉴와 호텔을 갖춘데다 관광지까지 곁들여지면 국제회의도시라는 이름을 선점할 수 있었죠. 당시 대구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MICE시장에 초기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젠 첨단 하드웨어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한

대구컨벤션관광뷰로

하다고 느낍니다."

백창곤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MICE산업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역컨벤션뷰로 또한 이에 발맞춰 역할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MICE도시를 자처하는 많은 지역 또한 좋은 행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연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역민의 친절도, 등록체계의 용이함, 편안히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소프트 인프라"라며 "컨벤션뷰로는 이러한 시스템적 인프라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역할에도 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컨벤션 유치만을 중점으로 했던 대구컨벤션관광뷰로가 MICE행사 적합지로서 세련된 대구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DMO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관광, 도시브랜드 홍보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올해 초 신설된 도시브랜딩팀과 관광팀은 대구를 홍보할 전략을 수립하면서 국제도시 이미지를 다져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도시브랜딩팀은 섬유, 의료, 산업도시라는 대구만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며 국내외 MICE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MICE참가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관광팀은 대구가 가진 대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담당한다. 또한 대구관광프로그램을 국내외로 홍보할 온·오프라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관광팀은 특히 단순한 개별관광객에 국한하지 않고 MICE행사를 통해 최대한 관광객을 이끌어 내는데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도시브랜딩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구MICE관광진흥센터 또한 지역컨벤션뷰로로서 최초로 시도하는 서비스다. MICE주최자 및 참가자를 비롯해 대구 MICE 얼라이언스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대구 MICE인프라 정보와 관광정보, 한국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예약을 통해 회의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회의와 교육을 위한 장소로 적합한 컨퍼런스룸은 최대 25명을 수용할 수 있다.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된 미팅바에선 다도체험, 전통복식체험 등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참가자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백창곤 대표이사는 "서울이 지식관련 포럼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지역성을 갖듯이 지역 MICE산업도 해당 지역에 집중된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맺으며 연관 MICE행사를 유치 해야 한다"며 "지역이 가진 산업단지와 관광을 매개로 목적지 홍보에 힘쓰면서 이들 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컨벤션뷰로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라고 말했다.

글·사진 강수정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Creative Linker 꿈꾸죠”

4월 초 세계 웹 분야 거물들이 한국에 모여들었다. 웹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월드와이드웹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회는 대전 지역 PCO인 제니컴이 운영했다. 제니컴은 2000년 창립해 14년 째 국제학술회의를 전문으로 기획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자외선 UV Detector 감지 제조업 전담하는 UV사업본부를 추가해 현재 2개의 사업부서에서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많은 PCO들이 학술회의를 하다가 돈이 안되면 행사 쪽으로 변해가는데 제니컴은 전기, 전자 등 이공계 쪽 학술회의를 전문적으로 해온 것이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경 대표는 이공계 학술회의는 제니컴의 뿌리이자 힘이라고 말했다.

“국제학술회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1년에 10여건을 진행합니다. 전국에서 학술회의 쪽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

제 니 컴

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APMC(Asia-Pacific Microwave Conference)라고 1995년, 2003년, 2013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학술회의는 제니컴이 모두 맡아서 했습니다. 전 행사에 대한 좋은 인연으로 조직위원회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인데 저희가 하는 행사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학술행사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제니컴 독자의 IT솔루션인 Cy-MICE 시스템과 ERS 시스템이다. 학술회의의 등록과 숙박은 물론 논문접수와 심사를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국내 많은 학술대회에서 편의성을 인정받아 의학, 인문학 분야 컨퍼런스 및 정부 지자체 컨벤션에 넓게 쓰이고 있다.

홍종민 과장은 "제니컴에는 따로 영업활동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꼼꼼한 준비를 기반으로 한 최고의 현장운영이야 말로 고객감동의 지름길이고 다시 제니컴을 찾게 만드는 영업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제니컴의 이러한 고객을 위한 신뢰 쌓기는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연결되고 있다. 회사 소모임인 '동행'을 통해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지역 희망학교 등에 후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등에 제니컴의 직원들이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지역 행사를 도와주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출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경영도 그 일환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Creative Linker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제니컴의 비전입니다. 가정보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회사에 있는 것이 즐거워야 하거든요. 돈만 벌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니컴의 목표입니다."

김복경 대표는 규모가 작은 지역의 PCO일수록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업체들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MICE산업은 융·복합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지역 업체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협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사진 박지선

재충전 위한 환상의 공간
차별화된 분위기로 승부한다

곤 지 암 리 조 트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에서 4㎞ 거리에 위치해 서울 강남에서 불과 4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인 곤지암리조트. 수도권 최대 규모인 스키장과 476실의 콘도미니엄, 스파와 수목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프리미엄 리조트는 북미 스타일의 이국적이고 차별화된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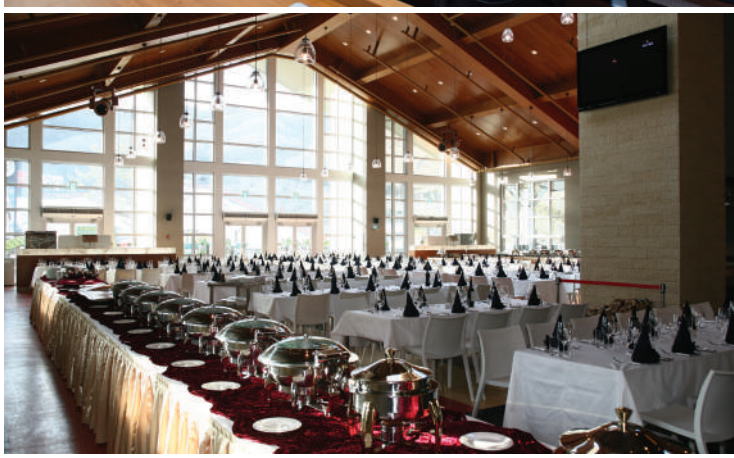
리조트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객실. 리조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편안한 휴식'이기 때문다. 고객들의 편안한 잠자리와 휴식을 위해 곤지암리조트 콘도운영팀 하우스키핑 직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고객을 맞고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지난 4월부터 특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테마객실 'ME-TIME PKG designed by Z:IN' 을 마련하고 고객 맞이에 들어갔다. EW빌리지 1층에 마련된 테마객실은 총 3가지 타입으로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화이트 로맨틱 스타일인 '스윗드림(Sweet Dreams)', 북유럽풍의 내추럴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인 '스타라이트(Starlight from the North)', 아이부터 조부모까지 삼대 가족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펀 위드 프렌즈(Fun with Friends)' 타입 중에 선택해 즐길 수 있다.

특히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브랜드 지인(Z:IN)과의 제휴를 통해 옥수수 소재의 친환경 마감재와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기능성 바닥재 등을 적용, 건강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꾸몄다. 또 모든 테마객실은 취사를 하지 않는 클린플로어(호텔형 객실)로 운영된다.

사계절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스파도 인기시설 중 하나다. 수질 관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 1회 이상 수영장내 담수 된 욕수를 취수해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영장 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 업체에 실내 공기질 검사를 의뢰하여 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스한 봄바람, 숲 속 구석구석 나무데크로 잘 꾸며진 산책로가 어울려 가족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곤지암 화담숲도 인기만점이다. 하늘 길로 펼쳐진 스키장 리프트를 타고 발 아래로 잘 정돈된 꽃밭과 산책길을 따라서 화담숲을 만날 수 있다. 곤지암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자연생태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곳으로 18개의 주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솔이끼, 돌솥이끼 등 30여 종의 초록색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끼원을 비롯해 붉은 진달래와 다양한 철쭉 등 아름다운 봄이 가득한 진달래원과 철쭉계곡, 7만여 그루의 수국꽃과 폭포가 어우러진 수국원 등 주제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식물들 즐길 수 있다.



MICE행사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컨벤션은 지난 2011년 리노베이션을 거쳐 현대적이고 우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컨벤션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호선 청담역과 인접한 코엑스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100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갖고 있어 대규모 연회장으로 손색없는 조건을 자랑한다.

4층 일루미나홀 230석, 3층 코스모폴리탄홀 450석, 갤럭시홀 250석, 임페리얼홀 150석 규모의 연회장은 1000여명의 하객을 넉넉하고도 품격있게 맞이한다. 세미나, 기업 연회, 런칭 파

서 울 컨 벤 션

티, 전시, 연주회 등을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곳이다.

갤럭시홀과 코스모폴리탄홀을 하나로 합치면 보다 넓은 공간연출이 가능하다. 식사와 예식을 함께 치르는 '동시예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규모 연회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모던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은하수'라는 명칭과 어울리는 길고 우아한 '버진 로드' 등을 통해 고급스럽고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일루미나홀의 얼음성전을 연상케하는 분위기, 로열블루빛의 고풍스러운 계단 등은 하객들이 서울컨벤션을 특별한 장소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파이프 오르간의 신비한 음률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임페리얼홀은 비교적 아담한 크기로 오붓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결혼식 피로연 뿐 아니라 돌잔치를 비롯한 각종 연회, 모임이 가능한 공간이다.

330인치의 초대형 미디어 월은 최근 리뉴얼을 통해 탄생된 공간이자 서울컨벤션의 자랑거리다. 예식에서는 신랑, 신부의 뜻깊은 사진들과 영상자료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MICE행사에서는 행사진행을 위한 생중계 기자재로 활용된다.

서울컨벤션의 경쟁력은 외관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컨벤션 식사 서비스의 퀄리티는 업계에서 정평이 나있다. 국내 최고 쉐프들이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철학과 맛에 대한 높은 기준을 고수해 기대 이상의 만족을 선사한다. 소호앤노호 전담 아티스트의 테이블 데코 또한 식사시간의 품격을 높여준다.

서울컨벤션의 양금희 부사장은 "지금까지 명문가의 혼례장소로 각광받아왔지만 격조높고 아름다운 공간미와 수준높은 식사 서비스가 조찬 및 만찬, 기업 비즈니스 파티, 세미나, 전시, 연주회, 런칭파티 등 다양한 MICE행사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유니크 베뉴로서 이러한 행사유치에 더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글 김효진

수도서울 매력 발산할 국제행사 명소 찾는다

서울시 유니크 베뉴 발굴 · 활성화 전략

서울시가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니크 베뉴' 확충을 위해 바쁜 걸음을 하고 있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전시·컨벤션센터나 호텔 등 일반적인 회의·연회 장소가 아닌 그 지역만의 매력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박물관, 고궁, 랜드마크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박물관, 미술관, 아레나, 궁전, 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유니크 베뉴를 국제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시설을 MICE장소로 개방하는 추세며 일본 역시 '국제회의 유치체제 구축과 강화'의 한 방안으로 유니크 베뉴 활용전략을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을 비롯해 박물관, 공원, 대학, 민간시설을 국제회의와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광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주최자에게는 제한된 회의시설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시의 입장에서도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MICE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계적으로 MICE행사 개최 시 유니크 베뉴의 선호도가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 문화 홍보와 이국적 분위기 제공 등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인 유니크 베뉴로는 1880년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래로 미국 대통령 12명의 취임 축하 무도회가 열려온 미국 국립건축박물관과 2009년 런던 주요 20개국(G20)회의 때 만찬과 영부인들을 위한 티타임을 진행한 영국총리관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가 밝힌 유니크 베뉴 대상지 선정 기준은 ▲수도 서울의 역

사와 문화가 배어있는 장소 ▲서울의 발전된 모습과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예술공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장소 등이다. 시는 지난해 1차 선정된 7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에 시설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사 대상에는 시가 관리하는 운현궁, 경희궁, 삼청각, 한강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상암월드컵경기장, 서울숲, 서울시청 신청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19곳이 포함됐다. 또 시가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인 경복궁,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서울대, 성균관대 등 13곳과 민간 운영 시설인 롯데월드, 한국의 집, 영빈관, 이랜드크루즈, 세빛둥둥섬, 63컨벤션센터 등 39곳도 후보지가 됐다.

홍재선 서울관광마케팅 MICE기획팀장은 "서울관광마케팅을 통해 주최자들이나 해외참가자들의 의견을 자주 듣게 되는데 서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조사작업을 통해 민간시설에는 서울MICE얼라이언스 가입을 안내하고 공공기관에는 통일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시는 조사발굴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서울 유니크 베뉴'를 선정하는 한편 10월경 선정된 회원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회원사가 독자적 홍보·마케팅, 국내외 MICE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관정보나 시설 및 장비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재하고 점진적으로 예약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크 베뉴 홍보물 제작과 뉴스레터 발간을 지원하고 해외 MICE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150년 아름다운 한옥 공간
오가헌(五佳軒)

오가헌은 150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전통한옥을 3년간 복원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오가헌은 광주광역시 도심 한 가운데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오가헌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너른 마당에 쏟아지는 햇빛과 나무, 나뭇가지 사이를 흐르는 바람이다.
전통과 문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발걸음이 '한옥, 오가헌'을 '문화공간, 오가헌'으로 만들었다. 'Little Paradise'라고도 불리는 오가헌에서 자연을 정성스레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주하면, 단아하고 그윽한 한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전통 만찬의 재현
동궁과 월지(구 안압지)

경북 경주시 인교동에 위치한 안압지는 옛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안압지란 이름에서 왕자의 거처와 연회 장소로 사용됐던 동궁과 달이 비치는 연못이란 월지를 합쳐 이제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게 됐다. 동궁과 월지의 고즈넉한 야경을 배경으로 컨벤션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그 섬으로 초대합니다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연수원)은 인천국제공항 바로 앞 섬, 무의도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에 위치한 아카데미는 2011년 7월 7일 테스코와 홈플러스의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곳에는 300명을 수용하는 그랜드룸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21개 교육장이 마련돼 있으며 야외극장형 교육장과 더불어 수산, 축산 전문가를 위한 실습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다. 총 67개의 호텔형 객실이 모두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지혜와 덕이 이어지는 곳 대구향교 / 미술과 연회를 함께 대구미술관

6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구향교는 유교 성현들의 지혜와 덕이 이어져 오는 곳이다. 한문과 예절 등 다양한 전통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치르는 혼례식은 외국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는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가 열려 향교를 찾는 이들에게 전통 고유문화를 전하고 있다. 국제행사 개최 시 한국전통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리셉션 및 만찬장소이다.
대구미술관은 대구·경북 유일의 공립미술관이다. 한국의 동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총 7개의 전문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와 시설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부속동에 위치한 뮤지엄홀과 아트홀에서는 200명 이상 규모의 이벤트를 열 수 있어 다양한 미술 작품 관람과 연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별을 보며 진행하는 특별한 회의 송암스페이스센터

경기도 양주시 계명산에 위치한 송암스페이스센터는 이름에서 예상되듯 산중턱 하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천문과학 실습이라는 특별한 체험과 함께 기억에 남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스페이스센터, 천문대, 챌린저 러닝센터 등을 통해 천문과학 실습을 할 수 있는데, 챌린저 러닝센터의 교육 내용의 경우 미국 NASA와 우주전문 과학자들에게 감수를 받아 제작되었다.

스페이스센터, 스타하우스에 위치한 뱅킷홀, 수성실, 금성실, 화성실, 목성실, 토성실 등 6개의 다양한 공간에서 규모와 성격에 따른 회의 및 세미나 진행이 가능하다. 뱅킷홀에서는 150~180석, 금성실은 80석, 목성실은 50석, 토성실은 30~40석 규모의 회의가 적당하다. 20석 규모의 화성실과 수성실은 주로 분임토의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모든 회의실에는 빔프로젝터, OHP, A/V장비, 유무선 LAN 등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지원된다. 객실은 총 19개실로 객실 당 2~6명이 이용 가능하며 복층과 단층의 다양한 형태를 갖춘 소규모 숙소와 단체 이용 가능한 숙소를 운영 중이다.

VIP 국제행사 발길 이어진다 생각하는 정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소개한 생각하는 정원은 제주도 토종 수목정원을 활용한 자연형 유니크 베뉴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MICE신성장동력사업에서도 생각하는 정원이 MICE 인프라 분문 1호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MICE 정원 내부는 환영의 정원, 영혼의 정원, 영감의 정원, 철학자의 정원, 감귤정원, 명품정원, 평화의 정원 등 7개 콘셉트로 구성돼 있다.

7개 정원 중 MICE행사 참가자들이 행사에 몰입하기 좋은 장소는 영혼의 정원과 명품정원이다. 영혼의 정원은 60명 규모의 연회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하나하나 직접 쌓아올린 돌로 완성된 겹돌담과 7층 돌탑이 특징이다. 생각하는 정원의 대표 컨벤션 공간인 명품정원은 500명 규모의 행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초기 정원이 만들어질 당시 첫 삽을 뜬 상징적인 공간이다. 각기 다른 두 개의 폭포와 연못, 팔각정, 회의장, 카페 등이 마련돼 있어 야외 컨벤션 행사를 진행하기에 조경환경과 시설부분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께 즐기는 영상복합문화공간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이 글로벌 영상 · 문화 허브를 꿈꾸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영화의전당은 영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고, 품격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네마운틴 · 비프힐 · 더블콘 3개의 건물로 이뤄져있으며 이들은 구름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객들이 편리하게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두레라움 광장을 덮는 지붕과 야외극장을 덮는 지붕은 축구장의 약 2.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또 하나의 장관을 연출한다.

Best Western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

새만금컨벤션센터 6월 개장

전북 최초 컨벤션센터…2000석 규모 회의장 갖춰
군산시 브랜드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전북 최초의 컨벤션센터가 오는 6월 군산에 들어선다.

총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착공 2년만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전시관 인근 7492㎡의 땅에 3층 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20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180석 규모의 중회의실, 15~40석 규모의 소회의실(7개), 비즈니스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컨벤션센터는 군산 내 국가산업단지와 전주·완산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MICE행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10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시 소재 기업은 총 985개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본격화된 최근 3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416개 기업이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변에 컨벤션센터나 호텔과 같은 MICE 관련 시설이 없어 기업들은 전시·박람회, 세미나, 교류파티 등과 같은 MICE행사 개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컨벤션센터는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달리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는 기업 지원 시설 기능을 중심으로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전주·완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GSCO는 지난 2월 군산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코엑스의 코엑스 군산사업단에 의해 우선 향후 3년간 운영된다. ㈜코엑스 군산사업단측은 컨벤션 센터와 인근 산업전시관을 하나의 종합전시시설로 통합, 각종 학술대회·세미나·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군산 고유의 자체 전시회를 발굴하는 등 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GSCO가 본격 운영될 경우 도내에서 처음으로 MICE산업에 시동이 걸려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숙박·음식·교통 등 방문객들의 경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을 기념해 오는 7월 8일부터 나흘간 한국진공학회의 '2014 플라즈마 응용 국제학술회의(ICMP)'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400여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컨벤션센터 개장을 계기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국제회의, 학술대회와 같은 대형 글로벌 MICE행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알리기에 팔걷었다”

광주CVB 꿈꾸는 MICE 하모니 2기

“MICE 하모니로서 첫 임무가 시작됐어요! 수소에너지를 알리면서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홍보하고 광주 MICE산업까지 알리는 1석 3조의 기회인거죠!”

지난 3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광주 MICE알리기에 나선 ‘2014 MICE하모니(MICE Harmony)’2기의 홍보 활동이 시작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0명의 MICE하모니 2기들은 미디어 홍보팀, 대회협력팀, 국제회의 개발팀 총 3개 팀으로 나뉘어 MICE산업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광주 MICE산업 육성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미디어 홍보팀은 도시마케팅·홍보 부문과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외협력팀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 광주권 MICE산업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국제회의 개발팀은 광주 특화 MICE행사 발굴과 모의 유치제안서 작성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MICE하모니 2기는 대학생다운 풋풋함과 끼를 발휘하여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14 세계수소에너지대회(WHEC)’ 홍보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14 WHEC 개최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유스퀘어, 야구장 등 광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 대상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성공적인 광주 개최에 힘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2013년 진행된 MICE 하모니 1기 학생은 “다양한 교육과 학술대회 및 전시회 운영요원 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 MICE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됐으며 광주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광주 지역 학생들이 MICE 하모니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람 모여 아이디어도 만발”

대구MICE서포터즈

지난달 12월 발족을 알린 대구MICE서포터즈의 인원은 무려 56명. 관광가이드 16명, MICE운영요원 40명으로 구성된 멤버들의 연령층 또한 다채롭다는 것이 대구MICE서포터즈의 특징이다.

서포터즈에서 관광가이드, 통역 부문을 맡고 있는 최미란씨는 대구MICE서포터즈가 대규모 인원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협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구성원들 모두 대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에너지총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는 것부터 남다른 시작을 기록했다”며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MICE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구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연령층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은 곧 하나의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돼죠. 대학생들은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전문지식을 내놓곤 합니다.”

대구MICE서포터즈의 주요 활동내용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참가지원서비스, 관광통역서비스, 국제회의도시 대구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5월까지 한국MIE연례통회를 포함해 총6개의 국제회의와 국제전시회를 지원했으며 보다 훌륭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MICE서포터즈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우 도시브랜딩팀 대리는 “열정으로 뭉친 서포터즈들을 위해 국제회의 지원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지역의 주부 및 정년퇴직 실버인력 등의 참여를 확장해 경력단절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 시민참여도 더욱 늘려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맛깔난 홍보, 기대하세요!”

‘경남마이스루키 2기’ 발대식

“저의 첫 대외 활동이 경남마이스루키입니다. 정말 맛깔나게 홍보활동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 ‘경남마이스루키 2기’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 창원컨벤션센터에 모인 대학생 MICE 홍보단의 얼굴에는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다. 경남마이스루키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MICE산업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에 열정적인 전국 4년제 이상 대학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그중 활동 가능성과 지원자의 열의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된 20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2박 3일간 경남 남해 및 하동 일원으로 미션여행을 떠났다. 이번 미션 여행에서 마이스루키는 경남의 관광 인프라를 답사하고 개별·조별 미션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적 홍보활동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경남마이스루키 2기는 이번 미션여행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매월 경남지역의 전시, 컨벤션 등 MICE 주요행사와 지역축제 및 여행지 등 경남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활동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MICE 개최지로서의 경남을 홍보하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매월 MICE업계 유명 인사들의 초청 교육을 통해 MICE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 활동자 1인에게는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4 CIBTM에 경남컨벤션뷰로 직원과 함께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경남컨벤션뷰로와 CECO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해 MICE 전문인력양성 과정으로서 역할 할 계획이다.

경남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상상력을 갖춘 MICE 새내기 ‘경남마이스루키’는 경남의 MICE인프라를 홍보하고, MICE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역대 최고 기대

세계 62개국 800여편 논문등록
참가자 3000여명 예상

수소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인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4(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이하 WHEC2014)가 오는 6월 15일~20일, 6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세번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WHEC2014 학술분야에서는 현재 세계 62개국, 80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중국 89편, 독일 69편, 일본 44편, 인도 35편, 프랑스 29편, 타이완 24편, 미국 24편, 터키 23편, 캐나다 21편, 말레이시아 21편, 영국 21편 등의 순으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의 논문들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다.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대회에서는 논문 400여편, 1800여명이 참가했으며, 2010년 독일 에센 대회에서는 55개국 논문 580여편, 2400여명이 참가했고, 2012년 캐나다 토론토 대회에서는 60개국 400편 1200여명이 참가한 바 있다. 통상 대회 한두 달 전 참가등록자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번 WHEC2014는 약 3개월전 이미 62개국 80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됨에 따라 전세계 3000여명이 참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십(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및 일본의 3대 자동차(도요타, 닛산, 혼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등 전 세계 수소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 30여명이 기조연설에 초청되어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상업용 연료전지, 수소안전 등 주요분야에 거쳐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수소연료차, 수소풍력,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수소로켓 등의 수소와 관련된 과학체험과 노화방지에 효과있는 힐링워터 수소수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며 전체 세션장에 수소수 정수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WHEC2014전시회에서는 Linde, Springer-Verlag Gmbh 등 20여개의 독일 기업과 BALLARD 등 10여개의 캐나다 기업을 비롯해 미국의 PDC Machines, 영국의 AFC Energy,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타이완, 핀란드 등 10여 개국의 유명기업들이 참가하고,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등 수소에너지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 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대회에서는 없었던 특별행사로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젊은 전공생들을 위한 Students' Day를 마련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우리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74개 대학, 180개 관련학과 재학생과 24개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홍보가 시작되자마자 부산, 경기를 비롯한 여러 과학고에서 참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광주광역시는 물론 전국 주요대학,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30여개의 기관이 후원으로 참여해 제 20회 WHEC2014를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

WHEC2014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whec2014.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회의로 풍성한 2015년 기대

세계물포럼 · 클러스터경쟁력총회 준비에 구슬땀

오는 2015년 개최 예정인 다채로운 국제행사 준비로 대구가 분주하다.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과 '2015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 '97년부터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전후로 3년마다 개최하는 글로벌 최대 물 관련 행사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1997년 모로코 '제1차 세계물포럼'을 시작으로 201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까지 모두 여섯 차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세계물포럼에선 전세계 물 관련 전문가와 정책을 다루는 정치인들이 모여 국제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논의와 해법을 다룬다.

한 해 앞으로 다가온 '2015 세계물포럼'은 공식행사에 앞서 다채로운 대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2일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며 물의 가치를 고유하고 세계물포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내놨다. 또 지난 4월 한 달간 세계물포럼 청년층 홍보대사 '블루로드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세계물포럼 홍보영상 감상평 이벤트, 희망水토리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코리아 주니어 워터 프라이즈 예선전과 물 교육 프로그램인 Project WET, 물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도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듬해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은 'Water for Ou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200여개국, 약 3만5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일 예정인 이번 포럼은 그동안 해결책 모색에 주안점 둔 것을 넘어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매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실행을 위한 중요 도구인 '과학기술 과정'을 신설,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 관련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제7차 세계물포럼은 실행을 기치로 인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물포럼을 한 해 앞둔 것을 기념하면서 지구촌 물 문제를 환기시키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또한 개최지로 선정된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총회는 대구가 가진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로봇산업 클러스터, 섬유산업 클러스터, 창조 클러스터 등 지역 주력 산업집적단지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기반으로 최종 유치가 확정된 것이다.

안국중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 육성 및 유치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 요건"이라며 "클러스터 관련 세계총회가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

2014 인천 MICE Job Fair

올해로 2회째 행사를 개최하는 인천도시공사 주관 '2014 인천 MICE Job Fair'는 오는 5월 28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 A, B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다가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실제적 업무를 개시한 인천 상주 국제기구, 최근 개관한 신규 글로벌 체인호텔, 인천지역 PCO의 원활한 개소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MICE 기업 인사 담당자와 구직희망자가 직접 만나는 일대일 채용상담과 MICE업계 유명인사를 초청할 '인천 MICE ACADEMY; 청춘마談'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취업과 연관된 부대행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취업박람회를 참가한 참관객은 송도컨벤시아 시설을 견학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MICE분야 업체는 40여개로 MICE 서비스업인 호텔, PCO, 번역, 학교 공공기관 등으

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천, 서울, 경기지역 2년제, 4년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외국어가 능통한 다문화 가정 구직자들과 직접 만나 인천 MICE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참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 MICE Alliance 마케팅 정례회의 개최

공동 마케팅 · 통계조사 사업방향 협의

제주컨벤션뷰로는 4월 9일 제주 MICE Alliance 마케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컨벤션뷰로는 이 자리에서는 100여개의 제주 MICE Alliance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국내외 MICE산업의 시장동향, MICE 개최지로서의 제주의 SWOT 분석 등 세미나를 마련해 향후 MICE Alliance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또 올해 제주컨벤션뷰로는 상해 IT&CM China을 비롯해 한국MICE산업전, 북경 CIBTM에 제주 단독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회원사와 함께 공동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사들은특색 있는 오·만찬 장소를 발굴하고 MICE 참가자들의 만족을 극대화, 체류일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주만의 MICE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MICE산업의 정확한 분석과 전망의 기초가 되는 MICE 통계수집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친구야, '아트버스' 타 봤니?

아트쇼 부산 2014 기간 운행

부산 지역 대표 예술 전시회인 '아트쇼 부산 2014' 기간 동안 부산지역 갤러리와 감천문화마을 투어를 위한 '아트 버스'가 연계 운행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올해 총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MICE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 '아트 버스'를 선정했다. 'MICE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MICE 참가자를 위해 관광버스 및 관광통역안내사를 지원하는 공사의 관광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MICE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 당 최대 200만원까지 국제회의나 전시회 참가자에게 관광버스와 관광통역 안내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아트버스' 사업은 '아트쇼 부산 2014' 참가자들이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8일부터 3일간 운영됐다. 투어는 갤러리 투어와 감천문화마을 투어 2가지 코스로 이뤄졌으며 버스에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했다. 갤러리 투어는 ▲소울아트 스페이스 ▲고은사진미술관 ▲가나아트 ▲조현갤러리 ▲부산시립미술관 등 부산의 대표 미술관을 관람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외 작가,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아트쇼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아트버스' 운행을 지원하게 됐다"며 "MICE 행사 참가자들의 투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부산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창원컨벤션센터, 11층 규모 빌딩 신축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11층 규모의 빌딩을 신축하고 경남 MICE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창원시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한 결과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다이나믹 웨이브(DYNAMIC WAVE)'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기존 연면적 6만240㎡에 1만8600㎡ 정도를 더 증축하는 것으로, 창원컨벤션센터 건물과 풀만호텔 사이에 11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부족한 전시장과 회의실,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컨벤션센터 연간 가동율은 70%를 넘어섰다.

시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공모를 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시장 및 회의실 증축과 함께 원이대로의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호텔, 시티7 등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설계공모를 실시해 총 5개 작품을 제출받아 지난 20일 전문 분야별(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경관) 대학교수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존 건물의 공간적 연계성과 조형적 상징성을 부여한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DYNAMIC WAVE'를 당선작으로 뽑았다. 'DYNAMIC WAVE'는 첨단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전시컨벤션의 무한 성장 동력의 바람이 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해 201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는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회의장을 짓기 위해 한 차례 증축한 바 있으며, 이후 전시장과 회의장 연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국비 등 490억 원을 들여 두 번째 증축을 추진해왔다.

한편 창원컨벤션센터는 최근 세계 최고 컨벤션센터들의 단체인 세계컨벤션센터협회(AIPC,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Palais de Congres)의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시설 규모와 운영의 전문성, 국제적인 기준 준수 여부 및 국제회의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AIPC 평가단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었다. 이는 국내에서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이번 센터 증축 사업과 AIPC 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킹 강화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관광과 연계로 시너지효과 창출

‘MICE 연계 복지관광 부산 팸투어’ 성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주최하고 ㈔한국MICE협회가 주관한 'MICE 연계 복지관광 팸투어'가 부산에서 지난 7~8일 열렸다.

부산, 경주지역의 MICE산업 관계자들, 관광특성화고교 및 직업전문학교 학생들,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정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벡스코, 누리마루, 영화의 전당, 사이언스쇼 더바디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MICE 관련 현장 견학을 통한 MICE산업 이해와 해동용궁사, 달맞이 고개, 야경시티투어, 부산아쿠아리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인 MICE연계 복지관광 사업은 마이스와 복지관광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MICE산업 홍보 및 취업연계, 관광산업 홍보 및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에 있어 다방면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관광특성화고 지원·인력양성 확대

전문교재 개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 시기 등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 수요 및 관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관광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관광특성화고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관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개최해 관광고등학교 교육 여건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관광고등학교용 전문교재 개발, 관광고등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 시기 조정 등이다.

우선 관광고등학교 전문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종 내외의 교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고등학교 교재 중, 교육부가 개발한 교과서는 '관광일반' 1권뿐이며, 나머지 20여 종은 시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교과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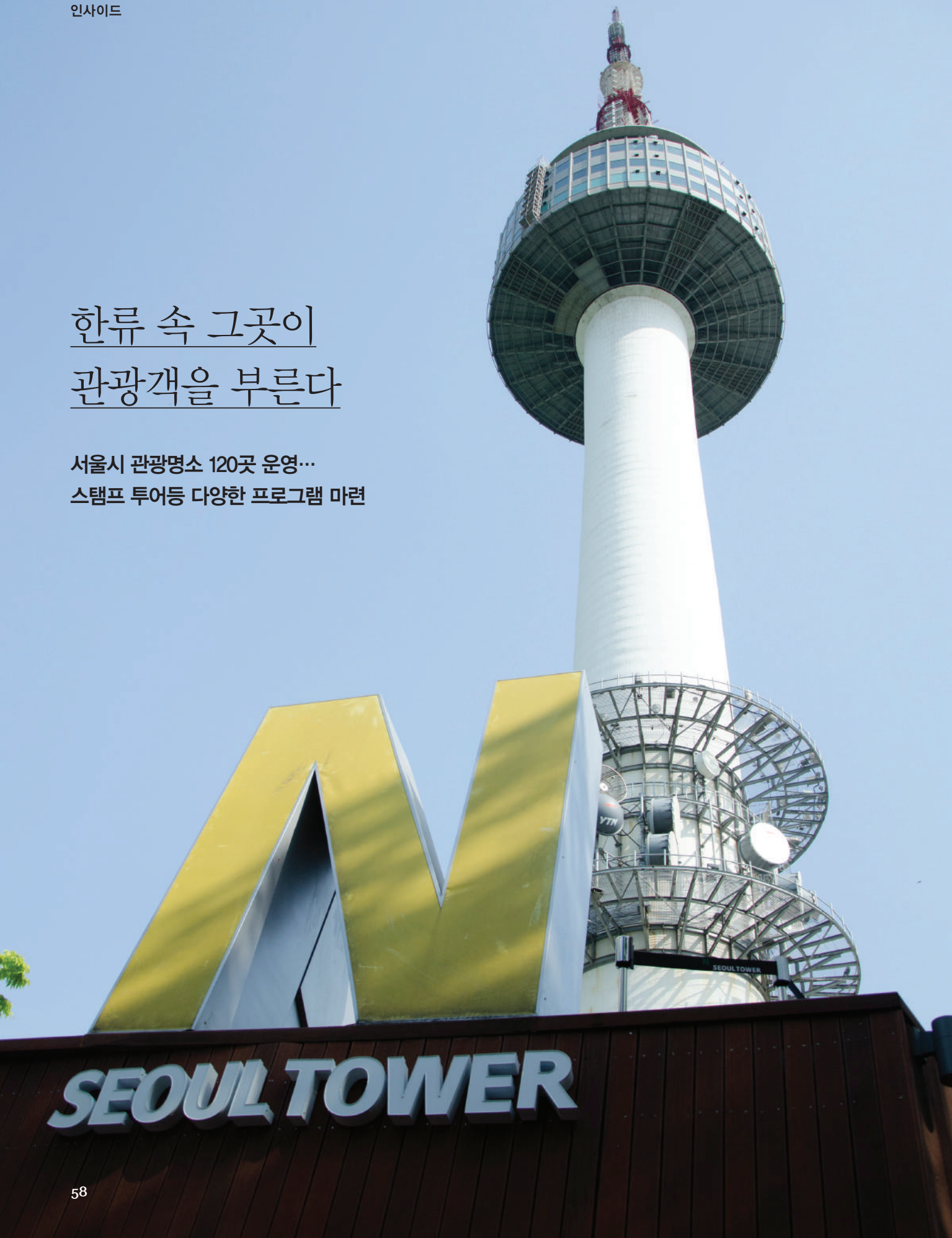
이 교재들 대부분이 대학교 교재의 일부분씩을 발췌하여 집필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고등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 관광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광고등학교 교사 중, 관광 분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게 된다.

이밖에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기를 조정한다.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이 11월에 시행되고 있어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은 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서 자격시험의 시행시기를 기존 11월에서 상반기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7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부터는 시험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시기가 조정이 되면 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자격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반기에 자격증을 취득해 이를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한류 속 그곳이 관광객을 부른다

서울시 관광명소 120곳 운영…
스탬프 투어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우리 결혼했어요'의 커플들이 자물쇠를 매달던 N서울타워, '런닝맨' '1박2일' 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기름 떡볶이 등 시장 곳곳의 음식을 맛보던 통인시장, '보고싶다'에서 애잔한 러브스토리의 배경으로 등장했던 동작 노을카페. 이들은 모두 드라마나 TV프로그램에 등장해 한류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명소들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내 관광명소 120개와 테마코스 7개를 발굴,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한류 팬 천만, 팬클럽 천개 시대의 한류 열풍이 서울의 관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K-Pop, K-Drama, K-TV Show, K-Star 등 4개 테마를 정하고 ▲'1박2일' 촬영지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지 N서울타워, 상암동 CJ E&M 사옥, 롯데 영플라자 한류존, 한류스타 단골 미용실, 연예기획사 등 120개 명소를 선정해 ▲런닝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도 런닝맨', 드라마의 멋진 남자주인공 찾아보는 '서울의 젠틀맨', 한류스타의 일상을 체험하는 '럭셔리 코스', 서울의 웨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등 7개 코스를 마련했다.

여기엔 거리, 카페, 식당 등 TV에 나왔던 숨은 명소들, 한류스타가 광고모델로 활약하거나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연예인들이 실제로 즐겨 찾는 카페나 미용실 등 '한류'를 매개로 이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과 관광객 인기몰이를 할 만한 장소가 총망라돼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5년간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시내 270여 곳을 자체 조사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관광객 접근성이 뛰어나고 콘텐츠가 매력적인 곳 위주로 추린 후 ▲서울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 한류팬 30명으로 구성된 '한류관광자원발굴단'이 추천한 명소와 코스를 반영해 구성했다. 서울시는 해외 각

지역의 한류팬과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굴한 관광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새롭게 개편된 서울관광공식 홈페이지(www.visitseoul.net)와 함께 오픈하는 한류관광 웹페이지(hallyu.visitseoul.net)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간·번체),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한류관광 테마 가이드북 11만부를 지난 2월부터 관광안내소, 공항, 호텔 등 각 관광접점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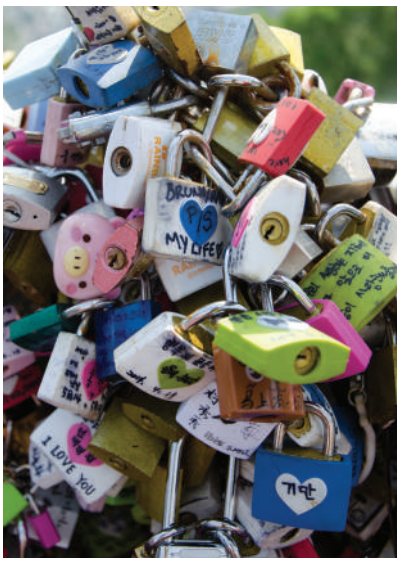
또 각 장소마다 촬영 관련 스토리를 담은 안내표지와 포토존(일부)을 설치하고,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운영해 찍은 도장 갯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한류 기념품도 증정한다는 계획이다. 포토존은 '우리 결혼했어요'의 커플들이 자물쇠를 달았던 N서울타워, 드라마 '보고싶다'를 촬영한 동작 노을카페, 런닝맨 멤

버들이 소녀시대 멤버들과 추격전을 펼쳤던 '풍물시장' 등 인기 명소에 설치돼 있다.

외국인 한류 팬 자격으로 한류관광명소를 발굴하고 코스를 구성하는데 참여했던 한류관광자원발굴단의 일본인 에토 아즈사씨는 "연예인들이 즐겨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명소와 코스가 구성돼 우연히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만큼 한류를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홍재선 서울관광마케팅 MICE기획팀장은 "문화재, 번화가 위주의 관광정보가 아닌 TV에서 본 적 있는 익숙한 곳과 연예인들이 즐겨찾는 장소 중심으로 관광명소를 미리 발굴해 소개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K-Pop, K-Drama를 넘어서 음식, 뷰티, 웨딩 등 한류관광 콘텐츠(K-Culture)의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강수정



한류스탬프투어 운영 명소

홍대 라이브공연 안내센터 씬디(XINDIE), 트릭아이 미술관, 큐브스튜디오, N서울타워, 압구정로데오 역사 내 G+Star Zone,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동대문 풍물시장, 강남관광안내센터,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청와대 사랑채, 시민청 등

UNWTO(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10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Global Report on the Meetings Industry'를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연례보고서는 경쟁력 있는 회의산업 구축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회의산업 사례 연구와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UNWTO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발행하는 7번째 관광분야 보고서로 Meetings Professionals International(MPI),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ICCA), the Asociacion de Palacios de Congresos de Espana(APCE), the Asociacion de Ferias Espanolas(AFE), the Organizacion Profesional de Congresos(OPC), the Association of Spanish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ies(DMCs Spain), the Society of Incentive & Travel Executives(SITE) 등 7개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지속적인 확장에 힘입어 회의산업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회의산업이 평균 이상의 방문자 지출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많은 이점을 제공함은 물론 도시 활성화와 지식의 확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UNWTO 사무 총장, Taleb Rifai는 "이 보고서는 공공-민간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회의산업에서 어떻게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회의산업의 경제 기여도 측정과 방법, 범위, 정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했다"고 평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가치 측정 접

회의산업의 가치,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UNWTO 'Global Report on the Meetings Industry' 연례보고서

근 방식을 제공하고 미주, 아시아, 유럽의 등을 사례를 제시했다.

중심테마는 회의산업의 가치 찾기

UNWT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회의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증명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에서 Martin Sirk ICCA(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CEO는 ICCA와 MPI, Reed Travel Exhibitions, UNWTO가 함께 했던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했다. 이는 관광 위성 회계(Tourism Satellite Account) 기준으로 회의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합의된 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덴마크, 영국 등 거의 모든 국가의 관광 통계와 방문자 조사에서 약 절반가량은 관광산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가 열림으로 해서 연계돼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나 관련 앱 소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의산업의 경제적 영향의 전체 범위는 수치화해서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회의산업의 가치측정이라는 도전

Jesus Maria Gomez MPI 스페인 사장은 회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와 컨벤션, 전시회 등의 가치 평가를 포기하거나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회의관광산업에서 부가적으로 유발되는 전문성 신장, 지식 이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기술진보 등 모든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시도조차 안 돼 있고 그 결과로 대부분의 가치 있는 혜택들이 무시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레저관광산업에 적용해 관광의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반 여행과 관광의 영향에 대한 UNWTO의 측정기준은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는 관광산업이 문화와 인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무형적인 혜택에 집중하자

Rod Cameron, Joint Meetings Industry Council 전무이사는 회의산업의 무형의 혜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회의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 경제적 혜택보다 더 큰 이익인 지식 이전과 지역 사회 발전 등을 말하고 있다. 그는 "회의와 컨벤션 등에는 필수적으로 장소가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일어나면서 전문 기술과 과학 이론 등이 전수된다"며 "회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 목적지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회의산업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호주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이벤트 시드니 리포트'는 이미 비즈니스 이벤트의 사회적 이익을 측정해서 회의산업의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증명하고 있다. MICE산업 전문 컨설턴트인 Mady Keup는 이 보고서가 비즈니스 이벤트의 경제적 중요성을 측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 지적, 무역,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이익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경험이 되고 이는 또한 현지 전문가의 양성 등으로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산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MICE산업에 종사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이번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ICCA의 Martin Sirk은 "UNWTO와 같은 글로벌 조직이 관광 분야의 한 분야인 회의산업에 주목했다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회의산업이 단순히 숫자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박지선

씨앗을 심는 마음, 친환경 회의를 위한 첫걸음

GMIC Sustainable Meeting Conference 참관기

살면서 "아하, 그렇구나"하고 감탄사를 자아내는 경험을 하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4월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14 GMIC Sustainable Meeting Conference에 참가하며 무릎이 탁 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참가자의 이름표로 사용하는 종이 안에 꽃 씨앗을 넣어 제작하고 행사 후 이 종이를 화분에 심어 꽃으로 가꾸게끔 하는 이 친환경적인 아이디어 앞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친환경 회의란 무엇인가? 재활용 종이사용, 인쇄물의 친환경적인 콩기름 사용, 그리고 에코백 등의 기념품 제작. 10여년 간 컨벤션분야에서 근무하며 경험으로 보아온 국내 행사들의 친환경의 움직임은 대부분 이러한 것이었다. 하지만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에 행사주최자도 행사를 운영하는 PCO도 선뜻 친환경을 필두에 걸고 행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사실 이번 행사의 주된 참가 목적은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회의도시로서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하고 그 타당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평소 생각하는 친환경 컨벤션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친환경 회의를 몸소 체험하며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기대치 않은 성과에 개인적으로 더욱 값진 시간이 됐다.

GMIC는 Green Meeting Industry Council의 약자로서 명실상부 글로벌 친환경 지속가능 회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준 설립, 인증 및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가까운 전문 글로벌 협의체이다. 현재 미국와 유럽 중심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는 싱가포르, 중국 등이 일부 국가 혹은 개인 회원의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GMIC Sustainable Meeting Conference는 올해 14회째 개최되는 친환경 분야 글로벌 컨퍼런스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컨벤션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참가해 2박 3일간 친환경 회의산업의 구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나누며 함께 해답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몸소 체험한 친환경 회의에 대한 경험을

몇 개의 중요 소주제를 가지고 〈The MICE〉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친환경 회의는 테크놀로지이다

우선 '친환경 회의는 테크놀로지이다'. 친환경 회의는 친환경 운동의 3R개념인 Reduce(줄임),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에 부합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행사에 사용되는 인쇄된 종이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체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돌아와서 우선 참가등록 및 프로그램 활동신청 및 행사전반에 관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행사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Topi), 페이스북 및 기타 SNS와 연계해 해외에서 참가하는 참가자가 가지는 의문사항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해 주었다. 총 행사기간 중에는 종이에 인쇄된 행사관련 자료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전체 참가자들은 노트북, 테블릿PC, 아이패드 등을 가지고 모바일 앱(Topi)와 연계해 모든 회의자료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사의 발표내용에 대한 실시간 의문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와 연사들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명함을 주고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참가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관련 행사장 구성에 대한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행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소화했다. 등록대는 책상 2개로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정보안내 역할을 단 2명이 담당하였다. 유도 배너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행사장 안에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목공으로 제작한 무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짙은 남색 커튼형식의 대형천이 무대를 대신하고 좌우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기본 무대 위에 일반적인 쇼파와 마이크가 모두였다. 조명은 가장 기본적인 조명을 사용하였고 외부에서 반입된 자재와 물품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 행사의 기념품도 친환경 스테인리스 물병 제작을 통해 행사기간 중 참가자가 자신의 물병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진행했다.

친환경 회의는 사회 공헌이다

식음료 운영은 사전에 먹을 양을 조절하고 남은 음식은 그 자리에서 음식은행(Food Bank)을 통해 사회공헌으로 연결하는 'No Waste'를 적용하고 있었다. 배식을 하는 장소에 끝에는 음식기부 상자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음식기부(Food Donation)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 중 커피는 단 1회, 단 하나의 종이컵을 1회에 한하여 제공하고 종이컵도 친환경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다. 이벤트 행사로 배고픔으로 고통 받는 저개발 국가 아이들 대상 식량 원조를 위한 음식 팩(Pack : 쌀, 비타민, 단백질 혼합체)을 만드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2만건 이상의 음식 팩(Pack)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컨벤션이 곧 사회의 복지와 건강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다.

친환경 회의는 행사 구성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협력과 협조이다

친환경 회의는 회의를 구성하는 주최자, 운영자, 참가자 이 세구도가 상호 협의점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일방적인 주최자 주도의 친환경 행사 구도는 참가자의 불편과 원성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행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행사 중 진행되었던 테크니컬 투어에서 행사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케이터링 회사, 친환경 인쇄용품을 사용하는 사진작가, 친환경 꽃을 사용, 행사 후 사회교육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디자이너, 스테인리스 친환경 기념품 제작 업체들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주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로서 지원과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을 통해 컨벤션 행사가 친환경을 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있었다. 참가자 역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행사주최자가 의도하는 친환경 행사와 프로그램에 동참하였다.

잠시 현재 대한민국에서 준비하고 개최되는 행사를 생각해 보았다.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최자, 운영자, 참가자 등 모든 컨벤션의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컨벤션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친환경 컨벤션국가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귀국하자마자 품에 앉고 온 꽃 씨앗 이름표 종이를 화분에 심었다. 꽃이 피어나는 순간 다시금 행사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회의의 중요성을 생각할 것이다. 피어나는 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말문이 열린 29개월 딸에게 전해 줄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회의가 주는 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조강욱 과장 인천도시공사 · 인천컨벤션뷰로

“책임 강조보다 경청하는 자세 사람과 소통하는 첫걸음”

하나투어인터내셔날 황지원 팀장

살면서 숱하게 마주하는 ‘우연’이지만 우연만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없다. 황지원 팀장의 현재 모습도 18년 전 우연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대학 4학년 시절 하나투어를 통해 3개월간 유럽배낭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알게 된 하나투어 광주지점 영업소장이 직접 그녀에게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직장생활에서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수준제고라는 꿈을 꾸고 있다.

황 팀장이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인바운드 업계 인센티브투어 분야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테지만 MICE업계는 특히 첫 단추가 힘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그 다음은 수월하게 잘 풀리고요. 한 번 저희와 만난 고객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 그 다음 고객 유치로 이어지거든요. 얼마 전 태국의 3000명 규모 인센티브 투어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작년 초 1600명 규모의 비슷한 행사를 잘 치러낸 게 계기가 됐죠. 서로 잘 아는 사이라 먼저 행사를 치렀던 그 업체에 저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줄곧 유럽자유여행 상품을 만들어왔다.

“FIT분야는 성과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다 업무성격도 까다롭고 위험부담이 커요. 항공과 숙박만 예약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대표관광지, 효과적으로 여행하는 방법, 여행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거든요. 그만큼 단체여행상품분야에 비해 고객과 접촉하는 채널이 많아요. 매주 토요일 설명회도 하고 고객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도 해야 하고요. 재미있는 일도, 힘든 일도 배로 많죠.”

그녀는 유럽배낭여행팀 팀장시절, 당시 본부장이었던 최종윤 이사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진정한 자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제게 전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율권’을 주시면서 제게 부여된 책임을 항상 함께 감당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을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것은 물론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자의 환경을 배려해줬고요.”

그녀는 “책임만 강조하는 조직에선 조직원들이 스트레스만 받게 될 뿐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다”며 “팀원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팀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는 ‘겸손’이다.

“저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왜 낮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겸손이란 게 굳이 자신을 낮춘다기보다는 과장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이되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녀가 유럽배낭여행팀장으로 있을 때 한 달짜리 상품을 이용한 사촌지간 자매가 있었다. 호텔측 사정으로 예약한 호텔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번 발생했다. 부모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 부모는 자꾸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하나투어를 못 믿겠다고 말했다.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하나투어를 찾은 고객이었고 저는 그 책임을 느꼈어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 진심어

린 메일을 부모님께 보냈어요. 그 분은 하나투어 팀장이라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하나투어를 다시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과 주변인들에게도 많이 소개할 것을 약속해주셨죠. 담당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일인데 그 분과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냅니다."

이 일은 그녀가 겸손의 미덕을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된 계기가 됐다.

그녀는 여행업을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막연히 해외출장 많고 화려한 분야라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의 꿈을 이뤄주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요. 편견없이 이 분야에 온다면 수많은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MICE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MICE전문인력이 정말 부족해요. MICE에 관심이 있어 해외로 나간 인력들이 그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저조차도 노력을 해야겠죠. 많이 공부하고 그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3국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비해 떨어지고 일본의 인프라 수준에 비해 떨어져요. 순전히 '한류'라는 이미지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실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란 곳이 단지 쇼핑, 한류문화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글·사진 김효진

모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마법의 리듬에 몸을 맡겨라

월 드 비 트　비 나 리

성공, 사랑, 건강을 기원하는 타악이 울려퍼진다. 앞길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매력적인 노래가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국 전통타악과 기악, 판소리, 민요 등을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소리로 재구성해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를 벗고 밝고 흥겨운 퍼포먼스로 새롭게 구성한 콘서트 '월드비트 비나리'. 비트와 리듬, 상황으로 구성된 기존의 넌버벌 퍼포먼스를 넘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다이내믹한 연주, 소원 축원 메시지 등이 담긴 독특한 레퍼토리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공연관광상품육성〉 제1호로 선정된 작품이다. 비나리는 순 우리말로 '앞글의 행복을 비는 말을 하다'라는 '비나리하다'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우리의 소리로 모두의 앞길을 축복하는 축원'이라는 메세지가 담겨있는 제목이다. 2003년부터 우리의 소리, 우리의 장단을 들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한 사회적 기업 '들소리'가 10년간 53개국 월드투어를 다녔던 레퍼토리다.

여는 마당인 '소원풀이'는 소원을 빌러가는 길 '길놀이 장단놀이'를 시작으로 성공기원, 사랑기원, 건강기원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곡들이 연주된다. 성공기원에서는 어서 소원을 성취하라는 '사바하', 무엇이든 잘되기를 바란다는 '승승장구', 만선의 기쁨, 풍요를 노래하는 '뱃놀이' 등이 연주되며, 사랑기원에서는 한 남자가 매화나무를 심은 사연을 노래하는 '임이 심은 매화나무'가 연주되어 모두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기원에서는 닫힌 마음을 열라는 '열고', 오복을 부르는 북소리 '오고타', 박힌 기운을 증폭시켜내는 격정의 리듬 '맥놀이' 등 신나는 리듬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이 막바지로 치닫는 건강기원 마당에서는 가장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타악과 흥겨운 노래들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흥과 기운을 쉴 틈 없이 몰아친다. 이어 '월드비트 비나리'의 주제곡 '들놀이' 연주 때는 관객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치며 자연스럽게 연주자들과 하나가 된다. 공연장을 나갈 때 무대에서 내려온 연주자들이 관객들과 마지막 흥을 즐기는 독특한 클로징도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월드비트 비나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08년 뉴욕타임즈는 "전통과 스펙타클, 현대적 쇼비즈니스를 갖추고 있는 그들의 소리는 크고 깊고 웅장하다"라고 극찬했고 2009년 세계 최대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멕스(WOMEX, The World Music Expo)에서 21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식 쇼케이스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소리로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또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 결과 신한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2013년 국제비즈니스 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라이브 이벤트 부분 금상, 2013년 제 3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국악부분을 수상했다. 단순한 넌버벌 퍼포먼스를 넘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맺힌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월드비트 비나리'의 선전을 기원한다.

글 박태진

공연개요

공연명
월드비트 비나리
(World Beat VINARI)

장르
한국음악 콘서트
(Korean Music Concert)

출연진
들소리 공연예술단

주요스탭
총제작연출 문갑현

문의
사회적기업 들소리
02-744-6800

홈페이지
www.dulsori.com
www.worldbeatvinari.com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naristory

그들의 몸짓이 내게로 와 아름다움이 되었다

지 역 별 주 요 공 연 소 개

가슴이 떨린다. 맞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노래와 연기가 어우러진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진실을 느낄 수 있다. MICE공연은 그래서 누구나 박수치며 환호할 수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계절의 한 켠에서 들여다볼만한 지역 공연이 기다린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매년 개최되는 DIMF는 국내 뮤지컬 시장의 성장에 맞춰 대구시가 기획한 국내 최초의 뮤지컬 페스티벌로 2007년 첫 출범이후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면서 한국 뮤지컬 시장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공식행사(개막축하공연 등)와 본행사인 공식초청작을 포함한 여러 뮤지컬 공연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개최된다.

공연 일시 2014. 7. 4 ~ 7. 8
공연 장소 대구 주요 공연장 및 시내 전역
홈페이지 www.dimf.or.kr

페스티발 오! 광주

광주의 다양한 문화, 예술축제들을 광주정신을 반영한 하나의 브랜드로 엮어 지역축제의 상생모델로 만들 '페스티발 오! 광주'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축제를 통해 '365일 매일 축제와 만나는 광주' 이미지와 함께 광주의 도시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열리는 축제에는 광주시립예술단(국극단 · 무용단 · 교향악단 · 소년소녀합창단)의 작품과 해외 · 중앙무대에서 인정받은 타 지역 작품 3개,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 '빛골아리랑'을 포함해 총 12개 작품이 선보인다.

공연일시 2014. 5. 14~7. 13
공연장소 광주문화재단 축제사업

찬기파랑가

신라 천년의 역사에 기록된 아름다운 청년, '기파'의 꿈으로의 여정. 정동극장 전통공연 〈찬기파랑가〉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의 아름다움을 한 편의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무극이다. 〈찬기파랑가〉는 신라의 정신, 화랑이 되고자 했던 청년 '기파'의 꿈, 신비로운 여인 '보국'과의 사랑이야기. 한국적 아름다운 선율과 역동적인 군무가 '기파'의 도전정신과 '보국'과의 사랑을 더욱 환상적으로 이끈다. 또한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완성도 높은 영상과 기술력으로 무대 위에 생생하게 재현돼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공연일시 Open Run (월요일 공연없음)
공연장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

국제행사 개막공연에 어울릴 공연?… 퓨전국악그룹 '연리지'

여성 4인조 퓨전국악팀인 '연리지'는 기존 국악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댄스, 힙합, 발라드, 클랙식 등의 다양한 장르 음악에 해금, 가야금, 거문고, 피리, 장구 등 우리나라의 전통국악기와 판소리랩, 보컬을 결합한 파격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연리지의 타이틀곡 '골방의수청통인'은 펑키한 판소리랩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인 곡으로 판소리 춘향가中 춘향이 곤장 맞는 대목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마치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느낌의 곡이다. 연리지는 각종 국제행사 개막공연으로 출연하며 행사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관제 No.1 솔루션 기업

㈜위엠비

㈜위엠비는 통합관제 No.1 솔루션 기반으로 성장한 ICT Management Total Solution 전문기업으로 ICT 분야를 비롯해 혁신적인 영상 솔루션 클릭쉐어를 제공하고 있다.

WeMB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ICT 통합관제 솔루션에는 통합관제 멀티플랫폼 TOBIT(투빗), 모바일 통합관제플랫폼 MOBIT(모빗), 3D Real-View 기반의 IBSilon(입실론)이 있다. 이미 금융, 공공기관 등 국내 고객사들에게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일본,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IBSilon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혁신적인 영상 솔루션 클릭쉐어는 무선 영상 송수신 시스템으로 노트북 또는 PC USB 단자와 연결된 버튼 클릭 한번을 통해 디스플레이장치에 화면 및 소리를 송수신 해준다. 또한 화면 4분할 기능과 최대 64대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영상을 송수신 할 수 있다. 스마트 회의실, 강연·세미나, 디자인실, 연구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며, 올해 클릭쉐어 미니도 출시 될 예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오프너디오씨 주식회사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길, 네트워크를 열어가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회의 유치·개최·홍보를 위한 컨벤션팀, 로고, 인쇄물 디자인 시안 작성 전문 디자인팀, 경영지원실 그리고 자문단으로 조직돼 있다.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공유하고 있다. 고객이 만족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로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2013년도 제2차 GPKOL 국제 심포지엄 (2013.12.10~11), 과학대중화국제심포지엄 (2013.11.14~15), 2013 한국해양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3.5.23~25) 등을 진행한바 있다.